南北國會會談

第10次 準備接觸 會議録

1990. 2.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一般事項 …… 3

2．會　議　録 …… 7

附録：代表團 記者會見 …… 81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0. 1. 24 (水) 10:00 ~ 12:12

나. 場　　所 : 板門店 北側地域 「統一閣」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首席代表〉	〈團　　長〉
蔡汝植 : 國會議員 (民主正義黨)	전금철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노동당)
〈代　　表〉	〈代　　表〉
金顯煜 : 國會議員 (民主正義黨)	안병수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노동당)
金琫鎬 : 國會議員 (平和民主黨)	이동철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노동당)
朴寬用 : 國會議員 (統一民主黨)	이주웅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사회민주당)
李熺逸 : 國會議員 (新民主共和黨)	박문찬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천도교청우당)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蔡汶植) : 자 이거 오늘 새 집입니다.

北(전금철) : 예.

南(金琫鎬) : 반갑습니다.

南(金顯煜) : 이동철先生 오늘 衣裳이 달라졌네요.

南(朴寬用) : 握手 또 한번 하십시요.

(雙方 首席代表 握手 및 記者들 寫眞撮影)

北(전금철) : 날씨가 요즘 대단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대충 보니까 開城만 해도 제일 추운 氣溫이 零下 20度, 오늘 제일 높은 氣溫이 零下 8度 추운데, 겉은 추워도 마음은 뜨거운 마음을 가져 왔습니다.

南(金顯煜) : 平壤은 몇도나 돼요?

北(전금철) : 平壤은 거의 같애요. 어제가 平壤이 제일 추운 氣溫이 12度랍니다 零下. 제일 높은 氣溫이 零下 9度라고 그래요. 오늘도 아마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南(李熺逸) : 咸北쪽이 많이 춥겠죠?

北(전금철) : 兩江道, 中江鎭 이런데는 대단히 추워요.

北(이주웅) : 전반적으로 零下 30度.

南(金顯煜) : 兩江道가 30度요?

우리 서울 漢江이 겨울철에 얼음이 얼면, 20度면 업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얼음을 깨고 낚시하는데 大同江에서도 그래요?

南(蔡汶植): 오늘은 우리가 이 建物을 새로 짓고 그동안의 南北의 會談, 여러갈래의 會談이 있었습니다만 이 집을 쓰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금철團長하고 우리 北쪽 代表先生하고 우리가 이 집을 처음 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혹 또 우리 會議를 해보면 세 時間 걸릴 때도 있고 두 時間 걸릴 때도 있고 해서 아마 중간에 한번쯤 우리가 한 10分동안 休息하는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10分쯤 休息하는 동안에 내가 전금철團長하고 여러 代表先生 이 建物 소개도 하는 이런 時間을 한번 가져 봅시다.

南(金顯煜): 좋죠.

北(전금철): 이야기해보면서 봅시다.

南(蔡汶植): 그럽시다 한번 가져보는걸로.

北(전금철): 오늘 처음 이런 建物에서 會談하는 것만큼 오늘도 잘해 봅시다.

南(蔡汶植): 잘해야죠.

北(전금철): 금년에 요즘에는 날씨가 이렇게 춥지마는 또 우리 금년에 들어와서 백년내에 없는 溫暖한 氣溫이 닥쳐 왔는데 그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平壤이 지난 1月 10日부터 13日까지 나흘동안 이게 백년내에 없던 더운 날씨였다고 그래요.

南(蔡汶植): 마찬가지예요.

北(전금철): 우리나라에 氣象觀測하기 시작한거는 1907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부터라고, 그 후에 平壤에서 1月初에 들어와 가지고 零上1度

에서 零上6度 사이였습니다. 그 나흘동안이 零上1度에서 零上6度 사이. 비가 오고.

南(金顯煜): 그렇게 되면 내년 農事에도 지장 있죠.

南(蔡汶植): 漢江이 어제 처음 얼었어요.

南(金琫鎬): 그 털모자 以北서 만든거예요?

北(안병수): 그럼.

南(金琫鎬): 그거 하나 膳物로 주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膳物로 가져 오세요.

北(안병수): 거기 털모자 쓸 정도로 추울까.

北(전금철): 우리 人民들의 統一熱望이 높아가니까 자연히 溫暖해지는게 아닌가, 금년이 좋은 幸運이 찾아드는 해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南(蔡汶植): 예, 새해에는 우리 希望을 가집시다.

南(金顯煜): 이동철先生은 지난번 보다 身手가 더 健康해 보이십니다. 表情이 밝고.

北(이동철): 健康이 나빠지면 안되지.

南(蔡汶植): 우리 新年에 처음 모임인데 우리 祖上 대대로 내려오는 설날, 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우리 朴寬用議員 설날 옷을 입었어요(雙方代表 웃음)

北(전금철): 蔡汶植先生, 지난번 우리 議會 그루빠委員長께서 그쪽에 편지를 보내서 84次 國際議會聯盟總會를 開催하는데 北과 南이 하나의 이름으로 代表로 나서면 어떠냐 하는 편지를 전달한 일이 있는데 그쪽이 조금 다른 意見을 가진 것 같은데.

원래 우리 國會, 여기 會議에서 上程시켜서 그 問題 討論할 수도 있

었는데, 그건 아마 여기서 上程시키자면 이런 豫備相逢에서 내놓을 성격에 맞지 않고 本會議 열고 하자면 時間이 좀 없고, 그건 그대로 時間이 좀 급한 것 같애요. 그래서 별도로 보냈는데 그쪽에서 여러가지 理由는 있는 것 같은데 좀 否定的인 反應이 있었습니다.

그저 國際議會聯盟總會 規約이라든가 이런건 있는것 같은데 規約이란 어디까지나 하나의 獨立된 國家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規約이고 分裂된 우리나라와 같은 特殊한 事情을 놓고 만든 規約은 아니고, 그래 國際議會聯盟 總書記도 그런 意圖에 대해서는 贊成表示하고 諒解가 있고 그렇게 된줄로 압니다. 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南(蔡汶植): 그 問題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代表중에 한분이 希望하신다면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얼핏 생각나는 건 그렇습니다.

그게 일천구백 몇년이었죠? (우리側 代表를 向해)

南(金顯煜): 1983年.

南(蔡汶植): 83年에 서울에서 大韓民國 國會가 國際議會聯盟 소위 IPU 總會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내가 IPU 總會 議長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그때 아주 遺憾스럽게도, 섭섭하게 생각나는거는 貴側에서, 貴側에서 IPU 서울總會에 參席을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또 書信도 여러번 보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그 問題에 관해서는 오늘 우리 議題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 필요하시다면 우리 金顯煜議員이.

南(金顯煜): 예, 있다가 할께요.

北(전금철): 예, 과거끼는 또 對決의 時代고 지금이야 다 그쪽에서 民族共同體 關係라고 하는데 지금 또 自由往來, 全面開放, 障壁 허무는 이런게 일정에 올랐을 땐데, 이것쯤은 成事됐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南(蔡汶植): 그렇습니다.

北(전금철): 좀 遺憾스럽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새 政界改編 많이 된거 같은데 여기서는 무슨 變化가 없으니까 이거 뭐.

南(金顯煜): 朴寬用議員이 새로 韓服을 입은걸 보시면 아시지.

北(전금철): 글쎄요. 變化가 있는 것 같애요. (雙方 웃음)

南(朴寬用): 설이라고 입었지만 말이죠, 앞으로 問題는 우리가 맡은 任務가 南北會談을 빨리 成事시키는거니까, 빨리빨리 成事시켜요.

北(전금철):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가?

南(金顯煜): 그런데 우리는 北쪽에도 그러한 형태의 일이 가끔 이루어지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北(전금철): 보통 우린 改編이라고 있을 때는 缺陷이 있을 때, 不足點이 있을 때 改編한다 이렇게 理解하는데.

南(朴寬用): 더 잘해가기 위해서 改編이라는게 필요하지요.

南(金顯煜): 歷史는 發展하는거니까.

南(蔡汶植): 항상 發展이 있고 보다 나은 次元 이걸 추구하는 거니까.

北(전금철): 겉이라든가 이런게 뭐 달라진게 있습니까?

南(蔡汶植): 조금 있어요.

南(朴寬用): 박선생은 천도교청우당이든가요?

南(金顯煜): 여기 이동철선생과 政黨이 다르지 않아요?

北(전금철): 예.

南(朴寬用): 박선생은 所屬政黨이 어딥니까? 청우당입니까?

北(박문찬): 예.

北(전금철): 앞에 분들이 朴浚圭先生이라든가, 李漢東先生이라든가 같이 좋게 出發했는데 뭐 또 우리 民族問題 마지막까지 관여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갔다면 좋았겠는데 돌아가서 뭐, 그쪽으로 말하면 昇進이 되겠는데 이렇게 간다고해서 우리가 뭐 좀 생각했던게 요즘 또 變動이 있는 것 같애. 내 생각에는 차라리 우리하고 같이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南(朴寬用): 지난번에 安否 傳達했더니 꼭 安否 좀 傳해 달라고 그러데요.

南(金顯煜): 李漢東先生이 安否 傳하고요.

北(이동철): 지금은 어디 가 뭐하고 있어요?

南(金顯煜): 열심히 活動하고 있지요.

南(朴寬用): 院內總務로.

北(이동철): 院內總務가 아니지.

南(金顯煜): 자기 選擧區에 가서.

北(이동철): 院內總務 그만 둔걸로 아는데.

南(朴寬用): 그만뒀어요, 얼마전에 그만뒀어요.

南(蔡汶植): 자 우리 시작을 해 볼까요.

南(金顯煜): 우린 자주 바뀌니까, 自由民主體制 아래서는 사람 자주 바뀌요.

北(전금철): 이젠 더 이상 途中下車는 하지 맙시다. 約束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琫鎬先生 그새 어디 觀光하지 않았습니까? 좀 낯이 탓구만요.

南(金琫鎬): 저는 이번에 豫算決算 끝나가지고 計數調整委員이 열한사람이거든요. 제가 團長이 되어가지고 호주 시드니로 해가지고 알젠틴, 칠레, 브라질 몇군데 돌아서 어제 그제 아침에 왔습니다.

北(안병수): 좋은데 가셨구만.

南(朴寬用): 그래 얼굴이 탓잖아요.

南(金琫鎬): 날씨가 더워가지고 말입니다. 혼났습니다. 거기서 運動도 좀 하고 했더니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北(안병수): 바닷바람 많이 쐬신것 같애.

北(전금철): 겨울인데 날씨가 따사롭길래.

南(金琫鎬): 關心있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南(蔡汶植): 이번에는 우리 側에서 먼저 말씀드릴 順序인 것 같습니다.

〈우리側 첫 發言〉

전금철團長

그리고 北側 代表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달만에 南北國會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열번째의 接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희망찬 1990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측 「平和의 집」을 찾아주신 北側 代表여러분에게 새해인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새로 竣工된 이 「平和의 집」은 45年의 分斷의 歷史를 청산하고 平和와 統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염원을 한데 모아 마련한 對話

의 전당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새해 첫 接觸을 이곳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雙方이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을 시작한지도 벌써 햇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홉차례의 接觸을 가지면서 協議를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南北國會會談이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第9次 接觸에서도 나는 우리 代表들에게 부여된 任務에 부합되게 南北國會會談 開催를 위한 節次問題를 집중적으로 討議해 나갈 것을 거듭 强調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進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北側 代表여러분!

오늘날의 國際的 潮流는 和解와 協力, 自由와 民主化의 방향으로 일대 轉換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情勢變化는 韓半島의 平和統一에 유리한 與件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온 겨레는 南北間에도 和解와 協力의 새 時代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세계의 관심과 이목도 진행중인 南北對話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40여년간 지속돼온 冷戰的 對決狀態를 解消하여 平和를 정착시키고 統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貴側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측은 南北對決의 時代를 청산하고 和解와 協力의 밝은 時代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인 措置들을 계속 취해오고 있습니다.

盧泰愚大統領은 올해 年頭記者會見에서 貴側 最高當局者가 제기한 南北間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환영하면서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南北頂上會談의 조속한 개최와 通行·通信協定의 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유왕래, 전면개방 以前이라도 우선 書信交換과 電話通話, 南北離散家族들의 自由往來를 실현시켜야 하며, 離散家族 모두가 어렵다면 60歲 이상의 離散家族부터라도 당장 故鄕訪問을 실현시킬 것을 提案했습니다.

일천만 南北離散家族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解消해 주는 일이야말로 어떠한 명분,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最優先課題입니다.

많은 離散家族들이 오랜 세월 그리운 혈육과 만날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몸부림 치다가 피맺힌 恨을 풀지 못한채 幽明을 달리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現實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바로 며칠후로 다가온 설날도 이웃들의 故鄕나들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헤어진 家族들 생각에 눈물지으며 밤을 지새워야 하는 離散家族들에게는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고통의 날인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바로 지척의 故鄕땅, 북쪽 하늘만이 바라보이는 임진각 광장에서 祖上에게 차례를 지내야 하는 離散家族들의 슬픔과 고통은 하루속히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貴側에서도 같은 民族으로서 和解하고 團合하는 새 時代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南北國會會談을 성사시켜 雙方 國會議員들 사이에 親善과 交流를 도모하고 協力의 土臺를 構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代表들이 이러한 견지에서 南北國會會談이 지니는 歷史的 意味와 重要性을 다시한번 깊이 認識하고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다해야겠다는 決意와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代表들이 이 準備接觸 하나 제대로 妥結하지 못하여 南北國會會談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民族과 歷史 앞에 어찌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接觸이 相互 尊重과 호양의 정신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어 남아있는 未解決 問題들을 해결함으로써 南北國會會談을 탄생시키는 接觸이 되기를 바랍니다.

北側 代表여러분!

우리들의 接觸에서 雙方間에 意見差異를 보이고 있는 問題는 크게 보아 「議題討議를 위한 모임」의 회담형식을 代表會談으로 하느냐 代表會議로 하느냐의 問題와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를 議題의 하나로 設定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問題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나는 貴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대한 우리측 立場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議題討議를 위한 모임」의 形式과 性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측은 「議題討議를 위한 모임」을 雙務會談 方式의 代表會談으로 하자는 立場인데 반하여 貴側은 連席會議 方式의 代表會議로 할 것을 계속 主張하고 있습니다.

貴側은 代表會議 方式으로 하는 것이 國會를 運營하는 본연의 형식에 맞을 뿐 아니라 對決觀念을 배제하고 民族的 團合을 도모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合理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貴側의 主張이 南北關係의 현실과 南北對話의 慣例를 무시한 非現實的이며 不合理한 主張이라고 생각합니다.

南北國會會談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南과 北에 존재하는 두 代議機構 사이에 갖는 會談입니다.

따라서 會談形式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貴側이 같은 政治制度와 法體制 아래서 運營되는 機構사이에서나 가능한 連席會議 方式을 고집하는 것은 事理에 맞지 않는 非現實的인 主張입니다.

뿐만 아니라 雙方이 討議하고자 하는 議題들도 雙方間에 協商을 통해서 協議·解決해야 할 雙務的 內容이기 때문에 連席會議 方式을 통해서 실효성있는 解決策을 講究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貴側은 우리측이 連席會議에만 존재할 수 있는 共同運營委員會, 共同議長, 執行部를 雙務會談 形式인 代表會談에 두자고 한 것은 억지이며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처음부터 南北國會會談을 代表會談 方式으로 하자고 해왔기 때문에 合同會議 形式의 開·閉會 모임에서는 共同議長制를 두기로 했으나 「議題討議를 위한 모임」과 관련해서는 首席代表制로 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共同委員會와 執行部는 貴側의 제안내용을 尊重하여 우리측에서 受容한 것입니다.

共同運營委員會와 執行部의 설치문제를 가지고 會談形式과 性格을 規定하려는 것은 主客을 顚倒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며 여러 事例나 慣例가 이를 立證해 주고 있습니다.

1972年의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와 지난 연말

第6차 南北體育會談에서 意見一致를 보았던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 構成·運營方案」에서, 다같이 共同委員長을 두면서도 雙方合意制를 採擇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會談形式과 性格을 規定하는데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貴側이 그간 南北間의 모든 會談이 雙務會談 方式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南北國會會談을 代表會談 方式으로 운영하기로 한 1985년의 合意精神에 따라 우리측이 내놓은 代表會談 方式에 흔쾌히 同意해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議題問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난번 接觸에서 雙方은 두가지 議題, 즉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와 「南北不可侵宣言 問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意見差異가 없음을 거듭 確認했습니다.

그러나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에 대해서는 아직도 意見接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貴側이 南北頂上會談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뒤로 미루려는 態度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頂上會談은 南北間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 가장 效果的이고 빠른 方法입니다.

나는 南北頂上會談이 提起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狀況에서 雙方 國會가 그 기능에 맞게 조속한 南北頂上會談의 개최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南北의 政治人들이 다해야 할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貴側이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를 議題로 設定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우리측 提議에 同意해 줄 것을 다시한번 促求합니다.

나는 以上에서 雙方間에 意見差異를 보이고 있는 會談形式과 議題問題에 대하여 우리측 立場을 밝혔습니다.

오늘 接觸에서는 雙方이 相互尊重과 호양의 정신을 최대한 發揮하여 원만한 妥結을 봄으로써 大望의 90年代를 여는 새해 벽두에 온 겨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감사합니다.

北(전금철): 수고하셨습니다.

蔡汶植先生 말씀하신데 대한 제 見解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北側 첫 發言〉

채문식수석대표선생!

남측대표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해에 있었던 제9차상봉에 이어 열번째로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나는 먼저 남측 지역에 온 우리 일행을 따뜻이 맞이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는바입니다.

북과 남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여러번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의 상봉은 80년대를 보내고 90년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열리는 북남정치인들의 대화라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분렬의 비극이 1990년대

에 들어선 오늘까지 근 반세기동안이나 지속되여오고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력사적비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근 반세기를 갈라져 살아온것만 해도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러한 비극을 다음 세기까지 연장시킨다면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물론 오늘에 살고있는 우리 세대는 참으로 력사와 민족 앞에 커다란 한을 남기게 될것입니다.

더는 갈라져 살수 없고 또 이대로 살아서는 안된다는 민족적 량심과 자각으로 하여 북에서는 물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자주, 평화통일 기운이 날을 따라 올라가고있는 현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절대로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견과 신앙, 년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의 형제들과 통일대화를 나누고 통일방도를 협의하기 위하여 사선을 넘나들면서 간난신고를 겪고있으며 지어는 옥중의 몸이 되면서도 통일의 길을 트는데 주저없이 나서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겨레의 통일열망을 물리적힘으로는 막을수 없고 멈춰세울수도 없다는것을 말해주는것입니다.

세계적범위에서 보더라도 여러 대륙의 대소민족들이 자기의 운명을 제손으로 개척해나가면서 자주를 지향하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으며 분렬된 다른 나라들에서도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래왕의 길을 열어나가고있는 오늘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유구한 력사를 창조해온 우리 겨레가 외세의 강요에 의하여 생겨난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지 못

하고 시대의 락오자로 산다는것은 가슴아픈 민족적수치가 아닐수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한정없이 분렬의 현상태를 지속시킬수 없으며 어떻게 하나 90년대에는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기어이 마련해야 합니다.

남측대표 여러분도 주지하는바이지만 우리측에서는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겨레의 앙양된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1990년대의 첫걸음을 떼는 올해에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며 이를 위하여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중대한 구국방안은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실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북과 남사이의 격페상태를 해소하며 조국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실제적인 대책으로 됩니다.

사실상 대결과 반목 속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북과 남이 최단기간에 통일의 길로 나가자면 어차피 북과 남을 격페시키고 차단하는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래왕과 개방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래왕을 회피하고 개방을 꺼려하면서 통일을 고창하는것은 빈 말공부이며 소극적이고 국부적이고 점차적인 교류만을 제창하면서 시간을 끌자는것은 구경에는 분렬의 현상태를 유지하자는것으로밖에는 다르게 리해할수 없습니다.

좁은 테두리안에서 특정한 몇몇사람이 대화를 한다거나 교류를 한다고 해서 통일의 기반이 다져질수 없습니다.

북과 남이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가자면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구속을 받음이 없이 오고가면서 상대측의 실상을 파악하고 오해

와 불신을 풀며 민족의 활로를 함께 열어나갈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여야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북과 남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차별없이 상대측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고 제한없이 접촉하고 활동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으로 되여있는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축성된 콩크리트장벽을 제거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머물지 말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전면개방하자고 주장하는것입니다.

정치군사적대결이 극도로 첨예한 오늘의 실정에서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한다는것은 북남당국의 행정적인 실무적 처리에 의하여 해결될수 있는 단순한 문제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북과 남의 당국과 정계를 대표하는 각 정당 수뇌들의 진지한 협의와 결단에 의하여서만 그 실현이 가능한 중요한 정치적문제이며 온 민족의 공동의 리해관계와 직결된 거족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북남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지체없이 열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랭전의 녹쓴 철조망을 걷어내고있는데 대하여 환영하고 부러워만 할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벽을 우리 나라에서도 제거하기 위하여 과감한 용단을 내리고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의 모든 정치인들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기 위하여 무익한 대결과 반목의 기성관념에 포로될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의 정신에서 혁신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보고 타개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마땅히 선도적역할을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이 상봉을 통하여 남측대표 여러분들과 국회의 모든 정치인들이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헐어내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가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응당한 노력을 경주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바입니다.

남측대표여러분!

온 겨레가 통일열망으로 들끓던 80년대를 넘어 통일의 활로가 펼쳐질 전망을 내다보는 90년대를 맞이한 우리 북남정치인들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고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90년대에 어떻게 하나 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로부터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고있는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통일위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것이 곡절을 겪지 않고 진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새로운 구국방안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높아가고있는 때에 귀측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 또다시 미군과 련합하여 대규모적인 「팀 스피리트 90」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면서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자고 손을 내미는 동족을 반대하여 구태의연하게 외세와 결탁해서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리려 하는 귀측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우리 북남국회의원들의 상봉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들이 결속

단계에 이르고있는 때에 「팀 스피리트90」합동군사연습계획을 발표하여 랭기를 몰아오고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는 귀측의 태도야말로 대화당사자인 우리뿐만아니라 온 겨레를 실망케 하는 무례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병력의 동원규모로 보나 군사장비의 질적, 량적 측면에서 보나 그리고 군사훈련의 성격으로 보나 그것은 공격전쟁연습이고 핵전쟁훈련이며 임의의 시각에 대화상대방을 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라고 우리는 단정하고있습니다.

귀측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마치도 「년례적인 것」이며 「방어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참관」이요, 「초청」이요 하고있지만 최신형공격용 군사장비를 갖춘 수십만병력이 실탄을 쏘면서 우리와의 접경지대에서 벌리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결코 범상한 일로 여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적인 통일구국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대화와 협상을 진지하게 요구하고있는데 다른쪽에서는 그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 전쟁연습을 벌리는것으로 대답해나서는것은 대화와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반대화, 반통일적인 립장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화와 전쟁연습이 량립될수 없다는것은 지난 시기의 경험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며 가깝게는 지난해에 있었던 대화중단의 쓰라린 체험을 통해서도 명백히 실증된 사실입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는 귀측에서 지난 시기의 교훈에 다소라도 류념하려 한다면 올해부터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있었으며 북남대화의 진전을 바란다면 최소한의 경우 외국군대의 참가를 배제하고 훈련명칭도 고치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할것이라고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온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온 세상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완화와 평화를 지향하고있는 지금에 와서조차 그 누구의 「침입」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린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랭전정책」의 산물이며 평화보다 전쟁에 더 관심을 두고있는 사람들만이 감히 할수 있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동족인 우리와 대화를 하는것보다 외세와 손잡고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리는것을 더 중시하는것은 반민족적인 사대행위이며 민족의 치욕입니다.

동족끼리 마주앉아 대화를 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외국군대를 끌어들여 동족을 위협하는 무모한 전쟁연습을 벌리는데 대하여 귀측은 응당 심사숙고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대규모의 전쟁연습은 불피코 불신을 조장하고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화의 전도에 그늘을 던질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쟁을 초래하는 결과밖에 빚어낼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진심으로 북남관계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의사가 있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있다면 이제라도 「팀 스피리트90」 합동군사연습계획을 취소하는데 응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입니다.

정세를 긴장시켜 전쟁접경에로 끌고가는 모험적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대화의 진전에 결정적인 장애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귀측에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으며 대화마당에서 직접 귀측에 거듭 강조한바있습니다.

우리는 북남국회의원들의 대화가 정상궤도에서 원만히 진척되자면 무엇보다먼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려는 귀측의 태도와 립장이 선명하게 표시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상봉에서는 실무절차문제토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팀 스피리트 90」합동군사연습중지문제를 긴급의제로 상정하고 협의할것을 귀측에 제의하는바입니다.

준비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아까 蔡汶植先生 말씀한 問題와 관련해서 제 意見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蔡汶植先生 이야기에서 이제 貴側에서 금년 1月 10日이겠는데 年頭記者會見에서 얘기된 內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제안한 北과 南의 障壁을 허물고 그리고 自由來往을 하고 그 다음 全面開放을 할데 대한 案에 대해서 조금 解明해야 할 그런 問題가 있는데 歡迎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좀 確認하고 싶습니다.

우리 案이 나간 다음에 反應을 보니까 障壁은 없다, 콩크리트 障壁은 없다하는 이런 公式的인 立場表明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얘기된 것처럼 1

月 10日 記者會見에서는 障壁을 허물데 대한 이 問題는 削除하고 그리고 밑에 協商形式으로서 最高位級이 參加한 當局과 政黨 首腦들의 協商會議라는 우리 提案 이 대목에 가서 이 代身에 頂上會議라는 걸 바꿔놓고 그리고 그 中間 표절해서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이대로 제가 얘기한다면 또 이제 蔡汶植先生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된다면 우리 提案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대로 환영하는게 되지 않고 자기나름의 어떤 또 案을 제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있어서는 明白히 얘기할 수 있는거는 뒤에서도 좀 얘기되셨는데 지금 統一熱望이 오르고 統一熱氣가 오르고 그러자면 여기 부합되는 統一方式, 全民族의 統一念願이 沸騰됐는데 특별히 90年代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開放 여기에서 鼓舞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統一에 希望을 가지고 지금 民族의 統一念願이 바싹 올랐습니다.

이걸 우리가 實現하자면 종래의 그런 方式으로선 안되고 새로운 方式으로 이걸 해나가야 되겠다.

그러자면 이제 提案한 것처럼 障碍를 좀, 어떤 政治的 障碍, 精神的 障碍, 心理的 障碍만이 아니라 物理的 障碍인 이런 分裂의 障壁, 分裂의 象徵이고 對決의 象徵이고 이런 障壁도 허물고 그리고 自由來往, 全面開放하자 이런 問題는 그 性格으로 해서 當局者만이 아니고 政黨 최소한 首腦들까지 參加하는 協商會議도 열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民族의 意思를 어느정도 모으는 것이다. 이런 案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얘기되는건 콩크리트 障壁問題는 아예 없다는가 하면 또 그걸 削除하여 얘기하고 協商形式은 다른 協商形式을 提案하고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理解 안된다 말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正式 回答書信이 이제 올걸로 기다립니다. 그때 볼 일이지만 오늘 모아 앉은김에 얘기한다면 우리가 提案한 案은 本質的으로 이런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月7日 記者會見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데 『당장 自由來往이라던가 全面開放 施行할 수 없다면』하고 論理展開한 부분이 있습니다.

例하면 通信이라든지 便紙라든지 離散家族들 問題라든지 90歲이상된 노인들 問題라든지 이런걸 展開하고 通行協定이라든지 通信協定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데.

南(金顯煜): 90歲가 아니고 60歲예요.

北(전금철): 60歲, 예 60歲.

이런것들이 말씀됐는데 뭐 이게가, 當面하게는 이게가 종래의 方式이란 말입니다. 이젠 統一熱望이 沸騰되고 統一熱氣가 이렇게 最大限으로 오른 오늘의 이 現實은 이 方式은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方式은 그야말로 障壁트고 自由來往하고 全面開放하고 이 方式으로만 充足시킬 수 있고 이 方式만 거기 부합되는거다 말입니다. 그게 해결되면 이제와 같은 그런 問題들은 스스로 그속에서 다 해결된다 말입니다.

예를들면 過去에 우리 赤十字會談에서 離散家族問題 解決方途로서 고통을 덜어내는 解決方法으로 全面自由來往問題 提起했습니다. 離散家族 自由

來往方式으로 離散家族 苦痛을 덜어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이번에 내놓은 그 테두리 案이 그 內容이 있다 말입니다 그案에.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지 이제 또 똑똑 뜯어서 하나씩 하나씩하면 變化된 現實엔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提案은 造成된 現 情勢의 要求, 民族의 統一念願, 고조된 여기 부합되는거고 이러니까, 또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다른 나라에서 障壁開放된데 대해서 환영한다고 했고 또 蔡汶植先生도 지난번에 나와서 여러번 거기에 대해서 强調를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뭐 별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問題 조금 意見을 交換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南(蔡汶植): 지금 나는 정말 悲感스러운, 遺憾스러운 이런 心情입니다. 貴側에서 전금철團長께서도 統一이 빨리 돼야 한다, 같은 民族이다, 障壁이 허물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90年代들어 오늘 처음 이렇게 接觸을 하는 過程에서 우리 國會會談의 進展에 관해서, 좀 진전시키는 實質的인 問題, 우리 議題討議라든가 會談形式에 관해서 進展시키는데 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貴側에서 오늘 이곳에 오기를 아주 바랬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대가 지금 전금철團長의 말씀을 듣고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역시 貴側에서 統一을 위한, 南北國會會談 成事를 위한 豫備接觸에 誠意를 이만큼 안가지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참 悲感스러움을 느꼈다 하는 겁니다.

아주 구태의연한 얘기들, 팀스피리트問題를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南北當局과 各 政黨 協商會議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철조망에

관해, 서로 來往하는 障壁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障壁, 콩크리트障壁이라든가 이런 問題에 관해서는 오늘 이것이 처음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問題는 팀스피리트問題라든가 各 政黨 代表, 當局과 連席會議라든가 등등 이런 問題들은 전금철團長께서 오늘 우리 會談, 國會會談의 本質과 동떨어진 이러한 問題는 나 자신도 벌써 여러번 전금철團長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런데 대한 見解와 對答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오늘 또 한번 되풀이 한다. 이거 앵무새처럼 똑같은 南北國會會談의 本質에 떨어진 問題를 앵무새처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國民들의 統一을 熱望하는 또 南北國會會談의 成事를 바라는 이 國民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주는거다.

그래서 지금 전금철團長의 몇가지 언급에 대해서 遺憾을 표시하고 또한 내가 나는 벌써 지금 問題 등등에 관해서 確固한 내 소견과 우리 代表團의 立場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가 또 좀 討議를 해야 된다고 할것 같으면 나는 나하고 동행한 同僚代表들에게 좀 發言의 機會를 줘 가지고 그런 問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結論的으로 말씀드려서 팀스피리트 등등에 대한 취소 운운하는 것은 매우 큰 망발이고 무례한 말씀이다. 굉장한 무례한 얘기다 하는 이야기 또 콩크리트障壁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콩크리트障壁이라는 거 貴側에서 얘기하는거 없습니다.

世界가 다 알고 있는, 다만 있다면 停戰協定을 違反하고 우리 停戰線 그 긴 線에 3,300볼트에서 10,000볼트의 高壓電流를 놓은 貴側의 철조

망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진정코 전향적으로 南北의 往來 또 統一을 우리가 진지하게 論議한다면 그거 3,300볼트에서 10,000볼트의 高壓電流가 흐르는 철조망의 問題가, 그 철거가 먼저 論議가 되어야 된다.

물론 나는 오늘 序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南北國會 豫備接觸이 빨리 成事되어서 우리 國會本會談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南北間의 會談이 成事됨으로써 우리가 交流를 하고 自由往來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 自由往來 뿐만 아니라 自由 通信, 便紙도 電話도 서로 할 수가 있어야 되고 來往도 해야 되고 또 通商도 우리가 세가지, 通行과 通信과 通商과 이 세가지가 아주 自由스럽게 이루어지는 南北關係가 돼야 된다.

故鄕訪問團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故鄕訪問團, 내일 모레가 설이고 여기 朴寬用議員이 설옷을 입고 왔습니다마는 이 離散家族들이 얼마나 故鄕에 가고 싶어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赤十字會談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소원을 풀어준다 하는 이것이 또 우리 南北의 自由往來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건데 이러한 것이 貴側의 아주 경색된 態度에 의해서 잘 進展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狀態, 이러한 狀態도 우리가 留念을 해가면서 다시 내가 지금 조목조목 몇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또 저지난번 會議에서 나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對答을 해서 다시 또 되풀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同僚代表들에게 말씀을 부탁드리고.

단지 다시 한번 매우 遺憾스럽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本質的 問題 南北國會會談의 形式과 또는 議題와 節次問題를 우리가 빨리 매듭을 짓자 하는데 대해서 貴側이 序頭에서부터 아주 찬물을 끼얹어 이

것은 國會會談 成事에 대한 誠意가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한 民族인 南北이 和解하고 協力하고 서로 來往하고 統一에 대한 雰圍氣를 우리가 북돋워야 하는 우리의 所望을 저버리는 그러한 지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遺憾을 表示하고.

또 팀스피리트 등등에 대해서 取消, 影響 운운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드리면서 우리 팀스피리트 얘기 한번 하시겠어요? (우리側 代表를 向해서)

北(전금철) : 먼저 順序的으로 얘기를 합시다.

팀스피리트 問題가 會談外的問題다 關係없는 問題다 말씀했는데 그럼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今年 1月7日에 그쪽 記者會見에서 팀스피리트 今年에 좀 縮小를 했다 하면서 그 縮小하게 된 理由를 밝히더군요.

거기에 南北對話와 韓半島 緊張緩和를 위해서 올해 팀스피리트訓練 縮小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南北對話를 위해서 縮小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縮小 그 自體問題에 대해선 저희들의 意見이 있건 없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뭐 그대로 認定한다면 그래도 무슨 팀스피리트가 南北對話에 支障을 준다고, 障碍를 준다고 하는거 認定한 거지요? 이게 認定한 거지요?

南(蔡汶植) : 팀스피리트問題는 基本的으로 우리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에서의 問題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지마는 貴側에서 하도 그 얘기를 또 꺼내고 또 꺼내고 구태의연하게 꺼내니까 그러한 것을 약간 한 것이지 貴側이나 南北國會會談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다는 것은 그 軌를 離

脫하는 거다.

北(전금철):예, 제가 좀 말씀하지요. 繼續하겠는데.

南(朴寬用):우선 말이지요. 이게 議題가 될 수 없습니다. 緊急議題라는거를 一方的으로 자꾸 提案해서 말씀하시는데.

北(전금철):그래도 오늘 緊急議題로 提起하는데, 왜 緊急議題 되는가 하는거지요. 過去 歷史를 봅시다. 76年부터…….

南(金顯煜):우리側이 먼저 얘기를 좀 하고, 貴側에서 얘기를 물어 왔으니까 한번 얘기하고.

北(전금철):가만 있어요. 조금 얘기 합시다. 팀스피리트問題야 이게 왜 우리가 緊急議題로 提起하는가 하는 意圖도 아셔야 되지요.

70年代부터 18年동안 對話를 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對話가 中斷·再開, 中斷·再開하는 不美스런 歷史가 지금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昨年에도 우리가 이 問題에 몇달 對話가 中斷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의 原則的인 立場입니다.

우리를 攻擊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총과 칼을 가지고 對抗해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對話라는게 論理的으로 맞지 않아요. 또 했댔자 對話가 成事안되고 論爭으로 끝나고 對決에 利用될 뿐입니다. 그래서 한거고.

여기에 대해서 망발이라든가 하는 이 말은 좀 取消해야 됩니다. 無責任한 發言입니다. 그리고 콩크리트障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그거야 어떻게 숨길 수 없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정 없다면야, 우리 철조망만 있다면 이게 끝난 다음에 같이 가봅시다. 여기 뭐 15분이면 되는데 가봅시다. 눈으로 보면 될건데.

그리고 저 무슨 철조망만 없애면 된다 하는데 우린 철조망 없애겠습

니다. 그건 뭐 간단히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콩크리트障壁도 상당한 정도로 몇년 거듭해 가지고 제가 알건데는 콩크리트만 해도 530만톤, 混合物 1,400만톤, 전석 400만톤 굉장히 投資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엄연히 존재하는 거니까 이건 뭐 우리가 달리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이건 分裂의 障壁으로 나쁜 象徵을 가지니까 이거 없애자.

物理的인 이걸 없애면 동시에 마음속에 있는 障壁들도 없어질거고 그래 놓고 來往이라든가 全面開放해야 現實性이 있는거지 이거 또 없애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예요. 한 두달이면 그저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問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콩크리트障壁問題는 우리 이동철의원이 조금 얘기 하겠어요. 貴側에서 없다고 하시니까.

南(金琫鎬):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선생, 콩크리트障壁도 좋고 高壓線電線도 좋고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거론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이 만남의 性格부터 다시 한번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國會本會談을 위한 豫備接觸 아닙니까? 豫備會談에서 무엇을 우리가 合意를 導出할 것이냐.

첫째, 會談形式 그 다음에 議題, 本會談에서 뭘 거론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근 10차례에 만나가지고 햇수로는 지금 3년째 입니다. 昨年, 再昨年부터 우리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形式問題도 會談이냐 會議냐 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씩만 양보하면 合意 導出할 수 있는 그런 立場이 되어 있고 議題問題만 하더라도 거의 끝난거 아닙니까.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節次的으로 實務者들이 만나가지고 하루속히 成事

시키는 그런 問題만 남아 있는데 자꾸 옆길로 가고 議題와 이 豫備接觸의 性格에서 벗어나는 方向으로 끌고가다 보니까 피차에 不信만 高潮되어 가지고 雙方間에 誠意가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팀스피리트問題만 하더라도 昨年에 貴側에서 거론해 가지고 議題로 삼자 해가지고 그런 問題가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다음에 왔을 때 우리 立場 밝히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一方的으로 取消해 가지고 그 만남이 깨어져 가지고 근 7～8개월만에 작년 연말쯤에 와서 우리 만난거 아닙니까?

그러니 本質問題로 돌아가서 우리들이 生産的으로 빨리빨리 進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立場입니다.

팀스피리트 軍事訓練問題만 하더라도 率直히 탁 털어놓고 얘기 한번 합시다. 어느 나라고간에 軍隊를 가지고 있는 이상 訓練을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또 國家間에 同盟을 맺고 있는 그러한 狀況이라고 그러며는 만일의 경우를 對備해 가지고 雙務的인 말하자면 雙方間에 이렇게 合同軍事訓練을 한다는거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問題는 그 軍事訓練이 公開로 하는 것이냐 非公開로 하는 것이냐 또 攻擊用이냐 防禦用이냐 이런 狀況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측에서 韓·美 팀스피리트 軍事訓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公開原則이다 그말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貴側 뿐만아니라 中國에다가도 통지를 했고 停戰委員

會 4개국에다가도 參觀해달라, 이렇게 公式的으로 통고를 했고 또 와달라고 1982년부터 公開로 여러분들 초청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쳐올라올 것이다 또 우리는 언젠가 자칫 잘못하면 誤判을 해서 北側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어쩔것이냐, 이런 不信風潮의 狀況下에서 軍隊들을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안고 존속을 시키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國會會談이라든가 또 이미 진행중인 高位政治軍事會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사가 되면 거기서 거론해 가지고 우리 군대 감축하자. 우리도 기본적으로 뭣때문에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팀스피리트 軍事訓練 하는 겁니까? 피차 不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緊張緩和를 하고 民族의 同質性回復을 하고 서로 往來하고 불신풍조가 해소가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더라도 안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問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攻擊用이냐 防禦用이냐, 公開냐 非公開냐, 이러한 성격자체가 중요한 것이예요. 우리 철저한 公開입니다.

그리고 攻擊用이 아니고 防禦用이다 그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안본 이상 어떻게 해서 공격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릴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본질로 돌아가자 그말입니다. 이제는 빨리 돌아가가지고, 거의다 妥結이 되어있어요. 콩크리트문제가 되었든지 철조망이 되었든지 高位政治軍事會談하자 그말입니다.

우리들이 해가지고 不可侵宣言하고 交流하고 協力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合意를 해갖고 발표를 하자 그말입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問題인데 왜 이 本質에서 다른대로 빠져나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권한이 없는 문제를 갖고 자꾸 이리 저리 끌고 다니느냐 그말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빨리 본질로 돌아가가지고 形式問題, 議題問題 거의다 끝난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北(이동철):琫鎬先生, 알겠어요. 다 답변됐어요.

南(蔡汶植):아, 그전에 내좀 애기를 하겠어요. 내 간단하게.

北(전금철):아, 애기하세요.

南(蔡汶植):지금 말이예요. 오늘 우리 會談을 우리의 소임인, 또 내가 發言文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豫備接觸의 本議題와 관련해서 우리가 討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물론 지금 전금철 단장께서 애기한 팀스피리트 臨時緊急議題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안되는 거니까 접어 제쳐버리고 우리의 본 임무인 이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의 議題討議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北(전금철):아, 저 애기하시오.

北(이동철):제가 애기좀 하겠습니다.

南(蔡汶植):아, 애기를 또 해야됩니까?

北(이동철):조금 합시다.

南(朴寬用):이제 그걸 討議議題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먼저 合意하고 그리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緊急議題라 그래 가지고 자꾸 애기를 하면 되나요?

北(이동철): 朴寬用先生, 얘기좀 합시다. 가만 계세요.

南(蔡汶植): 나는 이것을 討議議題로 삼는데는 拒否예요.

北(이동철): 우리가 이제 다함께 대답하겠어요. 그 얘기를 다 이해하도록 對答하겠습니다. 내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全面開放, 自由來往問題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측에서 이번에 제기를 했는데 나라의 統一을 위해서 全面開放, 自由來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의 障壁을 허물어야 한다 분열의 障壁을. 아주 正當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말 안하고 우선 先生들도 먼저 상봉에서 蔡汶植先生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東西獨에서 분단의 고통의 상징처럼 여겨오던 베를린 障壁이 허물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겨레가 이걸 다 부러워하고 統一의 날 올거 바란다는 것 그러면서 國會議員들이 마땅히 分斷의 障壁 허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과 역할을 해야된다고 하면서 그걸 환영했습니다.

또 朴寬用先生도 自由來往, 全面開放問題 좋다고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 동독사태, 동서독사태를 걸면서 이런 취지로 볼때 …….

南(蔡汶植): 아 물론 해야지요. 그걸 하자면 본 의제를 빨리 討議를 해야 돼요.

北(이동철): 네, 그렇지요, 들으십시요. 이렇게 보면 全面開放, 自由來往, 그를 위해서 우리의 임무는 分斷의 障壁을 허물라는 거는 우리의 염원일 뿐만아니라 많은 國會議員 先生들도 그런 일치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全面開放, 장벽을 허물고 全面開放, 自由來往하는 것은 민족사적 요청이라 할 수 있고 오늘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볼때 하

나의 필연적 要求라고 볼 수 있어요.

南(蔡汶植):옳은 말씀이요.

北(이동철):이건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정중하게 제기를 했는데 統一을 위해서, 國會會談도 그래요. 全面開放이나 障壁을 허는 문제를 떠난 어떤 純粹 國會會談 이런건 있을수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팀스피리트 이제 얘기하겠어요. 그래 이런 취지로 보나 이건 응당한 문제다. 우리가 응당한 관심을 표시하고, 우리 단장선생이 제기했는데, 정중하게 제기한데 대해서 정중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具體的으로 봅시다. 콩크리트 장벽에 대해서 없다, 군사시설물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나는 이걸 그렇게 생각안해요. 엄연히 콩크리트 障壁이 있으며 그것은 분단의 장벽, 분열의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 저 한 두어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이 分斷의 障壁이란 실무적으로 버리고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1972年 7·4南北共同聲明이 나온 이래 南北의 통일기운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南側의 위정자들은 이 통일 기운에 정국 위기를 느끼고 73年 6·23 特別宣言을 발표했습니다. 두개 조선 公式化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민족분단을 위해서 일련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와함께 뭐인가 대외적으로는 두개 조선 정책을 선포하고 내부적으로는 통일기운 막고 나라의 國土를 절반 분단시키는, 영구분단을 위해서 이 分斷의 障壁을 쌓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分斷政策의, 分裂政策의 직접적 산물이고 그 실현이라고 우리는 봐요. 그럼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게 군사장벽인가? 여기 저쪽 분들은 많이 군사 시설물이다, 장벽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 틀리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봅시다. 아 그게 反땅크 施設物이라면 말이요. 反 땅크 施設物 그렇게 설치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세계 군사적으로 다 볼때 反땅크 施設物은 그렇게 구축을 안해요. 철근이라든가 콩크리트라든가 이런걸 척척 박아 놓는다 말예요. 그건 뭐이겠는가?

南(蔡汶植): 아주 잘 아시는구만.

北(이동철): 軍事야 내 알죠. 統一되지 못한 祖國에서 軍事를 모르면 안돼죠. 그런데 땅크가 들어갈 수 있는가?

南(蔡汶植): 그거 많이 박았어요.

北(이동철): 땅크 들어가면 첫째로 땅크 1차 전진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심을 보장해야 합니다, 反땅크를 할려면. 그런데 그 장벽은 어떻게 됐는가?

일선으로 우리나라의 저 西로부터 東까지 가로질러서 나선의 뱀처럼 구불구불 우리 민족의 강토를 감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면 지금처럼 反땅크 시설물은 1차 타격에 녹아나면 다예요. 그 다음에 땅크가 그다음 연달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현대전서 군사적으로 볼때 反땅크 시설물을 그렇게 구축 안합니다. 그물망으로 이렇게 1次線이 막아주면 계속 들어가지 못하게 종심 깊이 구축합니다. 초보적인 상식이예요. 그건 이렇게 봐도 反땅크 시설물이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다음 障壁이란게 무엇입니까?

세번째로 볼때 障壁이란건 담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옛날 성벽부터 나왔는데 누구도 못다니게 문하나 내놓고 종 땅땅치고 검토를 받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통제를 한단 말이예요.

分界線의 콩크리트 障壁이 바로 이렇게 갈라놨다 말이야. 여기로는 사람도 짐승도 그 누구도 다닐수 없다 말이야. 말하자면 民族을 둘로 갈라놓고 둘로 갈라놨을 뿐아니라 南北의 전체, 北南의 전체 어느 정치·경제 어느 사람도 自由로이 오갈수 없게 만들었다 말이예요. 이건 엄연히 分斷의 障壁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말하는건 뭐인가 이 새로운 思考 發想을 해야 되겠다. 오늘에 와서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지 말고. 우리가 제기한 것도 다른 겁니까?

오늘에 아까 단장 선생도 얘기했지만 오늘에 統一問題는 째째하게 요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툭 터놔야 됩니다. 이러한 發想을 여러분도 가지고 우리의 제의를 객관적으로 한번 잘 檢討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南(蔡汶植): 예, 잘 들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나는 대답할 흥미를 안 느끼는데 우리 金顯煜議員.

北(이동철): 答辯할 수 없습니까?

南(金顯煜): 예, 제가 좀 얘기하죠.

南(金琫鎬): 콩크리트 障壁이 문제입니까? 政治的으로 制度的으로 마음의 障壁이 문제지.

南(李熺逸): 문제는 政治的 障壁이지.

北(안병수) : 그게 마음의 표시예요.

南(金顯煜) : 내가 좀 얘기할께요.

南(李熺逸) : 콩크리트 障壁이 어디있으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못다닙니까?

北(전금철) : 物理的 障壁부터 없애야 해요.

南(金顯煜) : 이동철 선생, 모처럼 제 앞자리에 있는 이동철 선생께서 아주 진지하게 여러가지를 硏究하셔서 말씀하시니까 또 저도 예의로서 몇가지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팀스피리트 問題하고 두번째는 障壁問題이겠는데 팀스피리트 問題는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우리의 예측을 적중시켜서 한편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 金琫鎬代表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긴 말씀 안드릴께요. 이건 상식밖의 일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구라파에 가보니까 소련분들 동구라파의 모든 將星들이 독일, 불란서에 와서 NATO 군사훈련 하는 것 다보고 또 이쪽에서 가서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게 攻擊用인가 核戰爭을 준비하는 것인가 이번에 한번 와서 보세요.

또 우리도 여러분들 소련하고 海軍訓練할 때 말이지 갈수 있도록 초청해주면 그 問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번에 그 문제는 論議하면 될줄로 알고.

그다음에 全面開放과 自由往來問題 이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反탱크 障壁을 말씀했는데 우리 6·25 戰爭을 체험한 사람들은 6·25 때 탱크 때문에 큰 고생했습니다. 우리 탱크에 놀랜 사람들이

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탱크가 좌우지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북쪽에서 분명히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탱크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히 防禦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걸 아시고 그것은 탱크의 自由往來를 막기위한 障壁이지 부분적으로, 사람의 자유왕래를 막는 것은 전연 아니라는걸 물론 아시고 그다음에.

北(이동철): 콩크리트 장벽 …….

南(蔡汶植): 전혀 없어요.

南(金顯煜):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이동철선생 훌륭하신 분이 그런 얘기 왜 자꾸해요?

그다음에 離散家族 問題와 관계된 障壁除去 問題인데 제가 사할린 동포 때문에 두번 사할린에 갔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0代의 젊은 나이로 日本 사람들에게 징용으로 끌려갔던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50年이 지나서 70歲가 돼가지고 故鄕에 못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國會代表團을 이끌고 두번 가서 그분들이 지난 9월달, 12월달 40名, 20名 두번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은 恨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60이 넘어서 90, 백순이 돼가는 老母를 가진 자손들의 입장 또 본인들의 입장은 恨이 다른것 없습니다, 故鄕가고 家族들 만나는거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理念과 體制를 초월해서 하루속히 어떠한 會談보다 우리가 빨리 성사시켜야 할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盧泰愚大統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障壁이 있어서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벽이라는 것은 먼저는 제가 저 구라파에서 東歐와 西歐의 장벽이 무너지고, 東西獨의 障壁이 무너지는 現場을 보니까 결국은 이 원리는 이거더군요.

지금 90年代를 맞는 89年은 말이예요. 말하자면 「K. Marx」가 태어난지 142年,「Lenin」이 태어난지 꼭 73年이 됐는데 동구라파의 6個國家에서 共產黨이 전부 간판을 내리는 그런 이변을 겪은 해입니다.

그러고 거기에 더불어서 共產黨 1黨體制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루마니아에서는 「챠우셰스쿠」가 갑자기 處刑을 당하는 그런 狀況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다 民主化, 自由化 그러고 人間의 基本的인 權利가 保障되는 社會가 이루어질 때 자유로운 往來가 徹底하게 保障된다.

지금 東獨과 西獨을 보며는 居住와 移轉의 自由가 완전히 保障이 돼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伯林에 가서 아주 感歎했어요. 완전히 이제 1월 1일부터는 아무런 證明書 없이 東獨이나 西獨사람들이 마음대로 往來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通貨共同體로 發展해 가지고 東獨사람들 돈을 西獨에 가지고 오면 100마르크까지는 1對1로 바꿔주고 200마르크일 때는 1對5로 바꾸어 준다고 그럽니다.

그건 하나의 移住의 自由가 保障됐기 때문에 이거는 生活共同體가 形成이 됐고 또 通貨共同體가 형성이 됐다. 이것이 東西獨 槪念으로 볼

때는 새로운 意味의 部分的인 統一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갑자기 鐵條網이 없어지고 또 障壁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自由往來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事前段階로 南北韓間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年老한 어른부터 자유롭게 往來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속히, 하루속히 通行協定을 締結하고 또 자유롭게 書信을 交換하고 生死를 確認하고 安否를 물을 수 있는 通信協定이 締結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 前提條件이 되어야 한다. 가장 時急하고 必須的인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다음 段階로 우리가 經濟協力의 段階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귀측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가지로 성의있고 활발한 이 方面에 대한 論議와 協力이 더불어 있기를 眞心으로 祈願하고 있습니다.

北(전금철):제가 좀 얘기합시다. 콩크리트 문제, 우리가 내놓은 그 方案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 方案을 우선 내놓은 그 趣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좀 더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그쪽에서 理解를 잘 하시지 못한것 같애요. 우리가 이제 方案 내놓게 된 건 …….

南(蔡汝植):이걸 우리가 議題로 지금 오늘 討議를, 얘기를 할 작정입니까?

北(전금철):이거 저 팀스피리트 문제를 비롯한 이게 懸案問題다. 중대한 문제죠. 이거 말하지 않고 國會會談이라는게 무슨 意義

가 있습니까?

팀스피리트 문제를 놓고 말하면 우리가 70年代, 76年 시작된 때부터 오늘까지 每次 會談에서 提議한 겁니다. 그건 귀측에서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이건 방금 발등에 불떨어진거 불꺼야 돼요. 그렇지 않고 對話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선 얘기하지 마시요.

南(蔡汶植):그럼 이거 國會會談 얘기는 뒤에 제쳐놓고?

北(전금철):아, 뒤에서 하죠.

南(蔡汶植):뒤에 제쳐놓고, 뒤제쳐놓고 …….(双方代表 騷亂)

南(朴寬用):이 정도로 討議를 끝낼것을 提案합니다. 이거 뭐 자꾸.

北(전금철):이거 얘기합시다.

南(朴寬用):그만합시다.

北(전금철):좀 얘기합시다. 基本問題 討議는 또 뒤에 가서 합시다.

北(이주웅):토의는 해야되는데 왜 자꾸 상대방의 의견을 …….

南(朴寬用):나는 내 任務에 充實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南(蔡汶植):이얘기 해보세요.

北(전금철):우리가 이번 새로운 方案으로 내놓게 된건 이렇습니다. 情勢가 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젠 從來方式의 人民의 統一熱望이 얼마나 높은지 이걸 가지고, 從來의 方式을 가지고는 안된다.

또 그쪽에서 자꾸 東西獨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東西獨 그 事態, 그 開放이라는게 우리民族을 지금 얼마나 衝動해줍니까. 衝動해줍니다. 衝動해줍니다. 統一의 希望을. 蔡汶植 先生도 말씀하셨더구만요. 東西獨에서의 이게가 開放이 이게 더 獨逸 統一에 대한 希望을 안겨줬다구요.

같은 겁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읍니다. 그래서 比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건 뭐이냐. 이제는 또한 저 무슨 대화든 어떻게든 해야됩니다. 당국대화도 해야되고, 이거 여러가지 대화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對話마당만 통해가지고 이 北南關係, 統一問題를 다 解決한다는건 이젠 낡은 思考方式이다. 그건 이제 바가지가 적어요. 바가지가 적습니다.

이젠 이미 터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自由往來, 全面開放할 것을 要求하고, 모두 件當으로 어디서 무슨 合意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通行協定 節次를 만들어 가지고, 通信協定 만들어 가지고 그런거 원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등된 統一熱望, 統一熱氣에 適應하고 그것을 우리가 受容해서 가장 合理的으로 해결 할 수 있는 方途가 이 障壁을 허물고 自由來往하고 全面開放하는 이거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提起했는데 거기서 지금 障壁問題가 논의되는데, 障壁問題 논의되는데 장벽문제가 이게 저거 우리 같이 나가봅시다. 그럼 그저 確認되겠는데 싸움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그저 分裂의 障壁이고, 아 저 땡크 무슨 자꾸 말씀하시는데 땡크야 우리 專門家들한테 물어봤어요. 땡크는 體系的으로의 防禦構築이란 1 m 50이나 한 정도면 된다 그래요. 아 이거 8 m, 높은데는 13 m입니다.

그런 땡크構築이란게 어디 세상에 있습니까? 남쪽에선 그거 構築하면서 軍事的目的에 한다고 宣傳을 하더군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 文件에

나간거 보십시요. 우린 分裂의 障壁이니까 그거 하지 마시요. 제발 하지 마시요. 이 民族의 羞恥라는 거 우리가 거듭 警告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이게 바로 문제된단 말입니다 이거 헐어야 됩니다. 우리가 헐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도 우리 熺逸先生 거기가 往來하는데 무슨 지장이 안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몇가지로 論證하겠어요. 이게 構築이란게 뭐예요? 우리 全面開放, 自由來往하자면 그게 어떤 方式으로 이루어집니까? 인구의 大移動입니다. 大移動입니다.

이거 북과 남이 끊어졌던 민족의 血脈을 잇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두 地域이 하나의 유기체로 結合됩니다. 거창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걸 뭐 구멍 두어개 내놓고 한다는 그런 實務的, 수공업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物理的으로도 장애가 된다 우선.

둘째로는 物理的 장애만이 아니라 이 物理的 장애가 이 장벽이 북과 남이 全民族의 가슴속에 이 분열의 장벽을 또 안겨줬단 말입니다. 精神的·政治的·心理的 障碍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헐자. 이것부터 헐어치우면 全民族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心理的 장벽, 政治的 장벽 이것도 헐어집니다. 헐어집니다. 아주 쉽게 헐어집니다.

不信도 解消되고 和解분위기가 조성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가 造成되고 統一이 열렸다 北南和合이 열렸다 이렇게돼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統一로 쉽게 나갈수 있읍니다. 이거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쪽에 統一에 대한 希望을 높여주는데 蔡汶植 先生의 지난번 發言 내 引用해 보겠습니다.

南(蔡汶植): 지난번 겁니까?

北(전금철):獨逸에서는 分斷苦痛의 象徵처럼 여겨오던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지고 國境線이 開放됨으로써 하나의 統一에 대한 希望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고조됐다.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統一에 대한 希望이 높아졌다. 바로 이겁니다.

허물면 統一에 대한 希望이 부풀어 오른다. 物理的 장애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헐자는 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거 헐어야 되는 理由를 이야기하겠는데 이것은 民族의 羞恥란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中世歷史를 보면 토성, 축조해 놓은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거야 民族의 자랑으로 存在하지요 歷史遺物로서. 아 그건 使命이 原來 하나의 外來侵略勢力으로부터, 侵略으로부터 이 民族, 나라를 守護하기 위한 手段과 方法으로써 제기된 것이란 말이요. 그건 자랑이란 말입니다.

아 이거는 民族分裂하자는 物理的 장벽으로 쌓아놓으니까 이 民族의 羞恥고 이건 다음 世代가 없애치워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그쪽에서도 이것을 허물면 統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것 같애요.

그건 이전 維新時代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維新時代를 청산하는 意味로도 그렇고 또 5共淸算하는데도 그렇고 이거 허무는게 참 좋을것 같애요. 인민이 다 좋아하고 말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이거 허뭅시다. 허물고 그래야 自由來往이라든가 全面開放, 그쪽에서 이야기하는게 實感이 있고 그렇지 이건 뭐「아닌보살」(註:시치미를 떼고 모르는 척하다)하고 이것만 하자 이거 안되겠다.

그리고 이제 顯煜先生말씀이 그쪽은 내 어느겐지 모르는게 있구만.

自由往來 뭐 이렇게 뭐 지지한다 肯定한다 全面開放을 肯定한다는 말씀

은 해요 記者분들 하시는데. 결국 떨어지는건 通行協定이라든가 遞信이라든가 무슨 60세老人에 대한 문제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 어느 쪽을 요구하는 겁니까? 自由往來, 全面開放 지금 당장 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그만두고 이쪽 거 하자는 겁니까?

通信協定, 通商協定 내 말이 나왔으니 말을 합니다. 그것은 分裂의 착상이예요. 分裂의 발상에서 나온겁니다.

앞서 우리 저 不可侵宣言에 대한 것도 論議하지 않았어요? 왜 그쪽에서 不可侵 자꾸 協定이요 뭐요 하는가? 우리 民族內部에서 무슨 協定인가? 民族國家사이에서 하는 그런식 자꾸 模倣하기를 왜 좋아하는가? 우리 北南關係問題는 統一問題, 다 統一問題와 聯關됩니다. 民族內部問題이고, 이 거족적인 문제고 거창한 정치문제이다. 이건 민족문제다.

이건 民族內部問題인 만큼 하나 문건 採擇해도 아 지금까지 北南間에 다 合意書라든가 이런 方式으로 해왔는데 자꾸 協定이라든가 이런式으로 하는가 이것이지.

行政的 協定으로 가지고선 이게 民族問題 해결할 수 없고, 또 通商協定, 通行協定 內容을 조금 보니까 그게 조물짝하단 말이야예.

이전에 이제와 같은 來往問題라든가 全面來往, 全面開放 이문제를 解決하자면 對話窓口一元化는 이게 스스로 없어져야 됩니다. 하니까 당국주도하의 교류라는 것도 스스로가 없어져야 되지 全面來往, 全面開放 무슨 自由來往하면서 對話窓口 一元化는 뭡니까? 저 무슨 주도하의, 당국주도하의 교류라는게 뭐입니까?

그건 스스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건 저 아주 낡은 思考方式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協定, 이건 맞지 않고 統制가 거기 있더구만요. 뭐 승인하에서 제기하고, 신청하고, 당국에서 승인하고 또 뭐 板門店共同事務所에서 비준하고 이게 이건 맞지 않는다 말이야,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도를 좀 아시고 다음번에 조금 거기서 硏究하셔가지고, 검토 지금 하시는중인것 같은데 요다음 回答便紙올때 이런 우리 생각을 좀더 硏究하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이런 對答 오기를 바랍니다.

저 이問題는 이만 하면 어떻습니까? 팀스피리트 問題얘기합시다.

南(蔡汶植):가만있어 보세요.

혼자 다 이야기해놓고 고만 둔다는 것보다 朴寬用議員 이야기 하기전에 내가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아주 명확히 이야기해 드리지요. 콩크리트障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있는것은 全 停戰線에 10,000V의 高壓線이, 철조망이 있을 뿐 입니다.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北(전금철):아 이거 같이 갑시다.

아까 휴식한다는거 휴식은 그만두고 그시간 아껴서 같이 갑시다.

南(朴寬用):자! 우리 전대표님, 우리가 이제 1990年度 들어와서 이제 첫번째 會談을 하고 또 어쨌든 우리측에서 새로 지은 집에서 정말 좋은 論議가 되리라고 잔뜩 기대하고 사실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와서 우선 말이지요 이 긴급의제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일방적으로 긴급의제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이래 헤어지며는 南北에 있는

모든 國民들 이거 쳐다보는 國民들 失望합니다.

그러고 자꾸 무슨 뭐 탱크시설계획이라 하시는 모양인데 이거 軍事專門家들 없습니다. 군사전문가들하고 만나서 하면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제로 채택되어있는 불가침문제에 관해서도 또 토의할 機會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임무는 우리에게 부과되어있는 우리에게 해야할 임무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해야지 매번 會議때마다 議題와는 관계없는 걸 가지고 나와서 자꾸 어려움을 조성하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자세를 가지고는 통일할 자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뭐 콩크리트때문에 統一이 안됩니까? 솔직히 우리 전단장 한번 생각해봅시다. 콩크리트때문에 통일이 안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요.

그게 무슨 東獨의 뭐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장벽이나 상징적인 용어를 이용해 보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부끄러운 行動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끄러운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여기서 그러지 말고 이거 이제 본의제로 돌아갑시다. 순수하게 하고싶은 얘기 많습니다마는 내 얘기 다 안하겠습니다. (雙方代表 騷亂)

北(전금철) : 그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야기하겠습니다.

北(안병수) : 이제 오늘 蔡汶植 首席代表께서 첫 기본발언을 하신데서 말입니다. 對決을 淸算하자 그거 아주 着想이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對決을 淸算하자는 그런 말씀하고 또 실지 오늘 우리가 提起한 問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볼때 거기에 상당히

言行不一致가 있다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나오셨을때 그래도 뭐 이거 基本問題 討議·結束을 짓고 어떻게 빨리 이것을 進展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를 期待했다고 그래요. 그야 우리도 같은 心情이죠.

우린 뭐 어째서 우리가 會談을 말자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期待는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期待가 더욱 사실상 강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팀스피리트訓練問題를 우리가 提起한 겁니다.

우리가 이 會談의 前途, 이 會談의 運命 이 問題를 정말 우리는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로 會談外的인, 우리 基本問題 討議와 동떨어진 問題라고, 우리 國會會談 豫備會談과는 이게 아무 因緣도 없는것 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실 수 없습니다.

왜그런가 팀스피리트 訓練이 도대체 어떤 訓練입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거기 公開的으로 이제 發表가 됐는데 朝鮮半島의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作戰半徑, 作戰空間이 좁아서 지금 軍隊를 縮小해야 한다 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南朝鮮에 팀스피리트訓練하며는 外國軍隊, 南朝鮮軍隊 꽉 들어차요. 아십니까 이거?

이게 뭣때문에 必要합니까? 이게 누구를 敵으로 하는 訓練이며, 어느 地域을 지금 假想하고 하는 訓練인가 이거, 이게 무슨 公開, 公開的이고 아니고 이게 問題가 아니요. 지금 科學이 發展하고 있는 이 時代에 와서 그게 問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팀스피리트 訓練에 이런거 政治的 性格, 여기에 대해서 잘 理解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重大한 問題를 여러분들이 外面할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危險을 앞두고서 高踏的으로 앉아서 이렇게 뭐 不可侵이 어떻소, 頂上會談이 어떻소 그것 우리 合意하며는 그게 잘 될것 같습니까 이런 姿勢가지고 ?

南(朴寬用):本質的으로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구만.

北(안병수):거 극히 不安한 겁니다. 아무런 擔保도 없어요 이런 條件에서는. 그래서 내가 얘기 하는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하는게 그 겁니다. 이런 엄연한 情勢를 정말 戰爭 接境에로 몰아가는 이 危險한 事態發展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대로 外面할려고 하지 말고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 事實을 是認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土臺위에서 우리가 정말 不可侵宣言이 실속있는 것으로 될 수 있고 다른 이여의 그런 合意된 問題도 鞏固하게 우리가 擔保될 수 있다, 우린 이런 念願에서 우리가 提起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걸 가지고 落望하지 마십시요. 落望할게 있습니까? 우리 問題를 解決하자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緊急, 이거 緊急議題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될수있지, 아 우리 작년도에 88올림픽問題, 緊急議題 우리 안 討議했습니까? 거기서 무슨 不可侵問題, 이 問題만 討議했습니까? 이거 다 前例가 있는 겁니다.

이런 緊急한 問題들은 응당히 우리가 討議해야죠. 造成된 情勢와 關聯되어서. 이 問題를 왜 여러분들은 回避하자고 그러십니까? 그럭하면 안되요. 이거를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팀스피리트訓練 自體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며는 여러분들 이거 軍事的인 側面에서도 물론 이제 攻擊的인거 核戰爭이라는거 여러가지 問題가 아주 深刻한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참 이 問題에 대해서 좀 우리의 理解를 여러분들이 充分히 하시도록 내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軍事的 側面에서만 問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政治, 道德的인 側面에서 이게 深刻한 問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朝鮮半島의 北南問題, 統一問題 이거 어디까지나 民族內部問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思想과 制度가 다르고 아무리 우리가 對決이 이렇게 격심하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건 어디까지나 民族內部問題란 말입니다.

民族內部 問題인 것인 만큼 우리가 이거를 平和的으로 雙方間에 協商을 통해서 會談을 통해서 解決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統一問題를 解決하는데서 우리가 自主의 原則이라는 거를 우리가 共同으로 合意했던 것입니다 統一의 重要한 原則의 하나로써 .

그러나 우리 팀스피리트訓練, 그 內容을 놓고 볼때 이거는 우리나라 內部問題에 대한 美國의 侵略과 干涉行爲입니다. 事實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同時에 이와 關聯한 貴側의 立場은 明白히 美國의 侵略과 干涉行爲를, 이거를 許容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나라 民族內部問題에 대해서 서로 相反되는 思想과 制度를 代表하는 어느 한편에, 한편에 加擔해서 外國軍隊가 投入되고 여기에서 戰爭演習이, 相對方을 刺戟하는 이런 戰爭演習이 敢行되고 威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며는 이러한 干涉行爲가 공공연히 이렇게 認定이 된다고 하며는 每個 나라들이 自主權을 尊重하고 이것을 不可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이 國際關係 이런 普遍的 原則이 도대체 어떻게 存在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오직 弱肉强食의 法則밖에 있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果然 이것이 오늘날의 國際社會에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선 이 팀스피리트訓練의 政治的 不道德性의 하나가 바로 여기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世界平和의 見地에서도 우리가 이거 아주 엄중한 問題다 이거. 만일 한 民族內部에서 內部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또 어느 一方이 自己存在를 保存하기 위해서 外國軍隊를 끌어들인다고 하며는 또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아 당신네도 끌어들이면 우리도 끌어들이겠오, 이렇게 外勢를 서로 끌어들일 내기를 한다며는 우리 朝鮮半島問題라는거는 벌써 國際化 되는거구 戰爭이라는거는 그걸 벌써 國際的인 世界的인 戰爭으로 되는 것입니다.

南(金琫鎬):아니 팀스피리트라는게 70年代부터 시작했는데 世界戰爭이 일어나지 않아요.

北(안병수):世界平和에 대한 엄중한 威脅이예요 이게. 朝鮮半島를 世界大戰의 發源地로 轉換시킬수 있는 이런 非道德的인 팀스피리트訓練을 어떻게 朝鮮사람이, 朝鮮땅에 사는 사람이 이거 許容할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非道德性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根源的으로 問題를 삼는 겁니다. 이걸 우선 理解를 해주시고.

南(朴寬用):그 자꾸 攻擊的이다라고 하시는데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北(안병수):그 다음에 팀스피리트訓練을 우리 國際政治角度에서 뿐만아니라 우리의 民族的 尊嚴, 自主性의 見地에서 볼때도 이게 정말 심각한 政治·道德的 問題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例를 들어 봅시다. 한 家庭안에 우리가 兄弟間에 싸움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며는, 그걸 우리가 서로 이렇게 和解를 시키는데 물론 兄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父母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받을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外部의 어떤 그 어떤 勢力을 여기다가 우리가 介入시킨다고 한다면 그 問題가 解決이 됩니까? 우리 民族內部問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뭣때문에 우리 民族內部問題에 美國을 끌어 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思想과 制度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血肉이 血肉아닙니까? 美國사람이 가깝습니까? 같은 血肉이 가깝습니까? 이거 常識的인 問題아닙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우리 흔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南(蔡汶植):그거 꼭 記憶해 두세요. 옛날에도 記憶했어야 될텐데 그거.

北(안병수):그런데 어떻게 돼서 美國사람과 같이 軍事訓練을 끌어들여서 합니까?

南(金顯煜):그거 와서 봐요. 한번 와서 봐요 어떻게 하는가.

北(안병수):무슨 美國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됩니까?

우리 무슨 血肉이 됩니까 이거?

이렇게 外勢를 끌어들여서는 우리가 서로 不信, 對決만 더 이게 擴大될 뿐입니다. 民族內部가 和睦할 수가 없어요. 또 民族의 展望自體가 問題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멀지 않고 우리나라 李朝末期의 歷史的인 그런 悲劇, 亡國史,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南(朴寬用):우리 좀 會談합시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南(金顯煜):對話로 이렇게 會談합시다.

南(李熺逸):아직 얘기할께 좀 남았어, 다듣고 합시다.

준비한거 다 읽어야지뭐.

北(안병수):原來 外勢에 自己의 運命을 내 맡긴다는 것 自體가 우리의 民族的 尊嚴과는 因緣이 없습니다. 그런데 外勢를 끌어 들여서 自己保存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 이거 우리 바꿔 말하면요 이거는 自己保存을 위해서는 어떤 手段과 方法도 가리지 않겠다. 民族의 運命도 이거 事實上 眼中에 없다. 이런 거를 意味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政治的으로 不道德한 일입니까 이게?

南(朴寬用):우리 6.25때 수백만명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北(안병수):여기에 바로 팀스피리트 訓練이 내포하고 있는 根本問題가 있습니다.

北(전금철):6.25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야 예?

南(金顯煜):아,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정말 答辯듣고 싶어요?

北(전금철):답변 내가 해야죠. 좀 들으라요.

北(안병수):말씀들으시오. 말씀들으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이게 北南 우리 互相對話의 見地에서도 이게 問題입니다 事實上.

南(蔡汶植):문제는 지금 거기서 만들고 있어요.

北(안병수): 왜 問題인가? 우리가 對話를 하면서 外國軍隊와 함께 우리를 反對하는 이런 核戰爭練習을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一面對話 그야말로 一面對話, 一面對決, 一打一話이런거죠. 뭐 다른게 있습니까?

이거는 雙方사이에 政治的 信義와 關聯되는 問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며는 우리가 相對方의 對話姿勢를 믿을 수 없어요.

南(蔡汶植):그런데 조금 얼마나 남았어요?

그런 이야기 하러 우리가 이자리에 온게 아니어요.

北(안병수):놔 두십시요. 제가 말씀드려야지요. 다 끝났어요 예. 이런 말씀을 바로 들으셔야 오늘 이 問題가 우리가 여기서 論議할 問題인가 아닌가 하는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수 있어요.

南(蔡汶植):그렇게 길게하지 말고 貴側에가서 教育시키는데다 써 먹어요 그거.

北(전금철):좀 참으라요. 좀 참아요.

南(蔡汶植):뭘 그래 말하는것들이 모두.

北(안병수):팀스피리트訓練을 90年度가 되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南(朴寬用):끝내요 이제 끝내라고.

南(蔡汶植):會談하러 왔지, 會談하러 왔지 그 유치한 소리 우리가 들으러 왔어요?

北(전금철):어 蔡汶植先生 들으시요.

北(안병수):그렇게 노하지 마십시요.

南(金顯煜):귀중한 時間이, 重要한 時間이 아깝지 않아요?

北(안병수):그러지 마십시오, 對話인데 이게 相對方 對話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무슨 對話입니까 그러며는 어떻게?

南(蔡汶植):대화다운 대화를 해야지.

北(안병수):그럼요, 對話다운 對話를 해야죠.

南(蔡汶植):그 질 낮은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南(金顯煜):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北(안병수):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요. 그렇게 感情을 表示하시면 안됩니다. 對話는 對話대로 …….

南(蔡汶植):忠告예요, 忠告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南(金顯煜):안병수先生이 對話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說教를 하니까.

北(안병수):아니, 우리 말해서 우리가 옳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北(전금철):들으시요. 우리는 그 쪽 얘기 다 들어줘요.

北(안병수):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요. 이거 저기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팀스피리트訓練, 팀스피리트訓練…….

南(金琫鎬):피곤해, 피곤해 아 팀스피리트訓練 內容 性格, 그만큼 알아듣게 이야기 했는데 자꾸 억지소리만 하고 있는데.

北(안병수):良藥은 苦口라, 아시죠 예? 아시죠?

들으십시요. 내가 얘기할거는 그저 이 問題를 그렇게 경솔히 보시지 마시고 우리 提議에 대해서 여러분들 誠意있는 對答이 있어야 되겠어요.

南(金顯煜):우리 이야기도 한번 들어 봐야지.

南(李熺逸):오늘도 벌써 12時가 가까워 옵니다. 우리가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豫備接觸을 시작할 때 6千萬 온 민족이 정말 부푼 期待를 가지고 統一에 그러니깐 希望의 길을 이제 熱望을 했는데, 그 동안 우리가 10次에 걸친 會議를 하는 過程에서 議題를 中心으로 해서 討議를 하면서 그나마 또 많은 進展도 보았습니다.

아직 몇가지 未解決의 問題가 남아있는데 이거 會議 때마다 나와보면 말이죠 이게 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南北間의 會談인지 이게 누구를 위

한, 宣傳場을 위한 宣傳練習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形便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선생께서도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는 얘기, 백번씩 되풀이 하는 얘기를…….

北(안병수) : 아니 그런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요.

南(李熺逸) :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 하지마시고 우리가 本質問題를 들어가야 됩니다.

自由往來, 全面的인 自由往來 그쪽에서도, 貴側에서도 提議했고 우리도 그것을 提議하고 우리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論議하고 있는 問題가 말이죠, 이 分斷이 物理的인 分斷입니까? 政治的인 分斷입니까?

政治的으로 解決이 되면 모든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議題로 삼았느냐? 지금 南北間에 多角的인 交流·協力에 관한 問題 이것은 거의 合意가 된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交流라는게 뭡니까? 自由往來를 前提로 하는 交流가 아닙니까? 그것을 論議하자고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이 論議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뭐 팀스피리트 무슨 얘기 장황하게 하지만 오래 繼續되는 얘기고 「南北不可侵協定에 관한 問題」라는게 뭡니까? 이게 되면 그것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宣傳을 위한 豫備練習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우리 議題에 들어갑시다. 議題에 들어가서 議題에서 자꾸 좁혀가면 모든 問題가 거기에 다 걸려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議題를 中心으로 한 會議를 하기 위해서

나왔지 이런 宣傳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南(蔡汶植):제가 오늘 여기에 우리집에 「平和의 집」에 오신 北側代表團 여러분, 오늘 두 時間이 되었는데 한 10分 休息을 하십시다. 10分 休息을 하고…….

北(전금철):아 休息이라는게 合意되어야 休息이지.

南(蔡汶植):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休息을 하고, 休息을 하고 우리가 차(茶) 한잔 먹고 하십시다.

南(金顯煜):차 한잔 하고 해요.

北(전금철):아니 이야기 하십시다.

南(朴寬用):아 이선생이 더웁다고 그래서 안되겠어요. 좀 쉬는게 좋겠습니다. 좀 더우니까 찬바람을 좀 쐽시다.

北(전금철):거 팀스피리트問題 말입니다. 팀스피리트問題 우리가 저 緊急議題로 提起했는데 그쪽에서…….

北(이동철):그거 뭐 간단해요. 그거 무슨 結論이야…….

北(전금철):그쪽에서 돌아가서 말입니다. 팀스피리트問題를 가지고 뭐 무슨 『應當한 어떤 措置를 취하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얘기 된다면야 우리가 더 이야기 할 必要없고, 내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南(蔡汶植):팀스피리트 그 問題 지금 그 對答을 먼저 드리지요.

北(전금철):예,쉬는건 뭐, 쉬는 것은 뭐…….

南(蔡汶植):그 問題를 먼저 對答드리는데 팀스피리트問題는 우리 國會會談 本會議의 議題가 전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貴側이 우리가 하는 팀스피리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한다는 것은 굉장한 妄發이고 그러한 것은 전혀 그건 禮儀에 反하는 얘기이고 앞으로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南(金顯煜):그것으로 끝내죠. 팀스피리트는 그것으로 끝냅시다. 意思表示가 分明히 되었으니까.

南(李熺逸):자 끝냅시다 그러면.

南(金顯煜):그래요 다른 것에 들어가야돼요.

北(전금철):내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北(안병수):그렇게 될 수 없죠.

北(전금철):우리가 重大한 問題를 提起했는데 그건 저 그쪽에서 좀 無責任한 것 같아요.

南(蔡汶植):그것은 一考의 價値도 없는 거예요.

北(전금철):이거 對話를 救濟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우리.

南(金琫鎬):팀스피리트問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高位政治•軍事會議에서 하고 國會本會談 가가지고 不可侵宣言 文章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뭐.

北(전금철):그쪽에서 이번 1月7日에, 1月7日에 거기서 記者會見에서 『對話를 위해서 縮小한다』 이거 認定한거 아닙니까?

南(金顯煜):그것은 우리 內部의 問題이니까.

北(전금철):그러면 對話에 이게 惡影響을 준다는 것을 認定하는 겁니다. 對話雰圍氣를 흐리게 하는 要因으로 된다는겁니다. 그런데 問題는 저 縮小한다는게 잘못되었어요. 縮小가 뭡니까? 그것 뭐 對話를 위해서 한다면야 縮小가 아니라 그저 이것 좀 다 撤廢해야 되는데.

南(金琫鎬):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南(金顯煜):그래 한 10分 쉬었다가.

北(전금철):아니 앉으시요. 그럼 오늘 一方的 退場으로 됩니다 그건.

南(金顯煜):아니 退場이 아니고 쉬었다가 해요.

北(전금철):아니 이거 저 合意된 基礎 위에서 休息이지 合意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南(金顯煜):아니 화낼 問題가 아니고.

北(전금철):앉으십시요. 對話歷史에 없던 일 하지말자 말입니다 이거.

北(안병수):앉으십시요, 앉으십시요. 거 一方的인 退場이예요.

北(전금철):一方的 退場이라는게 뭡니까 이 對話에? 相對方에 대한 이건 모독이 아닌가 이건?

南(金顯煜):아까 會議 시작할 때 이야기 했잖아요?

南(金琫鎬):不可避하게 화장실도 갖다와야 되고 그러는게 아니예요 그게 예?

北(전금철):화장실 갖다오시라 이거예요, 글쎄 갖다오시라요. 그건 우리 許容해요.

南(朴寬用):前에도 우리 休息한적 있어요.

南(金顯煜):許容이라니?

北(전금철):對話라는거 씩 열어놓고 一方的 休息이라는게 뭡니까 그게 예?

南(蔡汶植):여보세요! 내가 화장실에 갖다오는데 許容이고 뭐고, 뭐가 許容하냐 이거예요.

北(전금철):그건 갖다오라는 말입니다.

南(蔡汶植):그 用語, 無禮한 用語를 쓰지말라고요 앞으로.

北(전금철):앉으십시요. 나도 앉아서 좀 休息하느만요 예?

南(金顯煜):아니 2時間이 지났으니까 좀 차 한잔하고.

北(이주웅):이거 無禮하게 行動하는구만.

北(안병수):지금 이거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저기…….

南(金顯煜):아니 意思表示를 分明히 하지 않았습니까? 팀스피리트論議는 더 以上 이야기할 價値가 없다 말이야.

北(안병수):아 글쎄 거기에서는 價値가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價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南(金顯煜):아 그만해요. 本議題로 들어가요.

北(안병수):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確認합시다.

南(金顯煜):예?

北(안병수):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南(朴寬用):議題를 두고 왜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北(안병수):우리 오늘 會議하는걸 보면 말입니다.

南(朴寬用):가만 우리 首席代表가 오면 해요.

南(金顯煜):首席代表 오신 다음에.

北(안병수):아니 일 없어요.

南(金顯煜):아니 오신 다음에 하세요.

北(안병수):아니 일 없어요.

南(朴寬用):아니 일이 있지요. 일이 없는게 아니지요.

北(안병수):다른 代表들 이야기하시면 이게 機會가 아닌데 뭐, 機會가 아닌데 뭐이 問題인가?

南(金琫鎬):쉬어 가면서 하는게 좋지요 뭐.

北(안병수):琫鎬先生! 琫鎬先生! 會談에 나왔으면 會談의 그런 目的이 …….

北(전금철):화장실, 代表 가실분 가고 우리는 하자말입니다. 이거 會談 時間에 무슨 休息입니까?

北(안병수):아니 顯煜先生! 내 말씀 들으세요.

北(이주웅):民族問題인데 깊은 度量을 가지고.

南(金顯煜):음. 요즈음 血色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거 硏究하느라고 좋아졌는가? 조금 기다려봐요.

北(안병수):아니 그런데 일 없어요.

南(金顯煜):首席代表先生 곧 들어오시니까.

北(안병수):아니 난 先生님들한테 이야기하겠어요. 會談이 成事되기를 바란다 또한 뭐를 이야기하는가, 많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會談外的인 問題를 가지고 複雜하게 만든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人道主義的인 原則에 서지않는 것 같다 이러저러한 表現이 많습니다. 그 妙한 表現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오늘 會談에서 解決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目的이 무언가? 祖國을 統一시키고 自由往來를 實現하고 全面開放을 實現하고 이걸 하자는건데 이것 議題를 討議에 앞서서 解決될 問題들이 解決되지 않으면 議題를 討議해야 意義없다 그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여태까지의 會談過程에서 보면 結實을 맺을 時期입니다, 結實을 맺을 時期. 그 다음에 國會會議로 보면 우리가 좋은 會議로 보면 萌芽가 돋아날 時期입니다. 싹이 터나올 時期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싹이 터나오고 結實을 맺는게 어느때 가서 맺는가? 그 설한풍 입혀 놓은 겨울우리가 암만 좋은 種子를 심어놓아야 結實을 맺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會議의 이 환경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會議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인가? 콘크리트障壁을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分裂의 象徵이고 祖國分斷의 象徵이고 民族史에 남기는 大罪의 象徵인데 이걸 없애지 않고 무엇하자는거요?

우리 원래 7千萬 겨레가 다 지켜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國會議員들이, 政治人들이 앉아서 이렇게 現實과 떨어진 이런 會談은 바라지 않는다 이거죠.

南(金顯煜):現實과 떨어진 이야기라고 그랬죠? 아 그 얘기 現實과 떨어졌어요 아주.

北(안병수):아 들으시요, 들으시요. 그래 우리가 이 만약에 우리가 政治的인 이런 障壁이 問題지 무슨 物理的인게 또 問題인가? 이를테면 이게 당치않는 말이 아녜요. 政治的인 問題가 실은 무엇이 싫으냐 이말이예요.

南(朴寬用):政治的 障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政治的인 障壁이라는게?

北(안병수):政治的인 問題는, 政治的인 그 理念과 모든 思想은 物理的인 現象을 통해서 實現된다는 겁니다. 이 障壁이 왜 쌓아졌는가? 障壁이 쌓아진건 그쪽 貴側에서 政治的인 障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웠던거라 그말입니다. 이거 자꾸 이럴게 아니라.

南(李熺逸):「탱크」때문에 쌓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北(안병수):아 땅크 때문에 쌓았다는거야 그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거요 전자 현미경으로 보지않아도 되는건데 아, 正常的인 思考를 가진 사람 눈으로 다 보면 되는건데 그거야 너무나 하지 않습니까?

南(金顯煜):우리 6.25때 「탱크」때문에 너무나 놀랬어요.

北(안병수):아 그건 너무나 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거이. 國會議員들의 會談입니다. 이게 무슨 땅크 때문에 놀래서 쌓았다 그게 여기서 말씀이 됩니까?

南(李熺逸):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말란 말이예요 그런 얘기를.

北(이동철):金顯煜議員先生! 땅크 때문에 놀라서 쌓았다는게 그게 무슨 여기 會談에서 論議할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거 弄談이 아닙니다 이거.

南(金顯煜):우리 차 한잔 하고 그러고 합시다.

北(안병수):아니 간단하게 이게 무슨 뭐 問題야 어려울거 있어요?

北(이동철):이게 政治問題란 말이야. 分裂政策을 基調로 우리 事物을 議論하고 內部에서는 分斷의 障壁을 쌓았어요. 그거 政策的으로 發起했고 政策的으로 執行했단 말이예요. 그게 政治 아니면 무시기 政治요?

南(金顯煜):아니 이동철선생! 콩크리트障壁 있는데 말이요 오늘 어떻게 왔어요? 콩크리트障壁을 어떻게 넘었어요? 그것도 묻고 싶은 이야기네요.

北(이동철):거기 單一窓口 一元化해서 왔어요 우리, 예 알아요? 그렇게 빠끔하게 열어놓아서는 안돼요 그렇게.

南(金顯煜):우리는 여러개 있다가 이제 政黨이 하나로 되는데 거기는 하나가 있다가 여러개 政黨으로 돼서 窓口 多元化로 했으면 좋겠어요.

北(이동철):아 우리 얼마든지 多元化해요. 열자는건데 뭐 多元化로 해야죠. 아 좋죠.

南(朴寬用):길이 없어서 往來 못합니까 지금?

北(전금철):우리 저 代表先生 오래 休息하시는구만. 내 좀…….

南(金顯煜):아니 아니야.

北(이동철):貴側에서 繼續 相反되는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그러지 말고 좀 誠意있게 대합시다.

北(전금철):蔡汶植先生! 지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南(蔡汶植):예.

北(전금철):팀스피리트問題가 왜 자꾸 論議되느냐 하는데 그건 뭐 그쪽에서 몰라하는 얘기인 것 같지는 않고 그쪽 當局者까지 이제 팀스피리트가 對話에 障碍를 준다 이번에 認定했어요. 처음 認定했어요. 처음 認定했는데 그건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對話에 이게 論議되어야 되는 것은 應當한 것입니다. 對話를 救濟하기 위해서 이야기 되는데 내가 한가지 이야기하고 좀 하자고 합시다.

南(金琫鎬):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南(金顯煜):예, 그러지요. 잠깐 쉬고 또 하고 합시다. 간단히 말씀하시고 넘어갑시다.

北(전금철):이야기 다 하고 갑시다. 이야기 다 뭐 이제 끝날 때 됐는데, 時間도 갔고.

南(金顯煜):왜 오늘 本會議 안들어갈 작정이예요?

北(전금철):아니 本會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갑시다 예.

南(金顯煜):그런데 왜 끝날 때 되었다고 그래요? 생각이 있군 그래.

南(蔡汶植):오늘 10時27分에 벌써 오늘 會談 이런걸로 이렇게 한다하고 작정하고 放送해놓고 오셨더구만.

北(전금철):그래요? 내가 지금 저 우리 美國에 대한 態度와 姿勢를

잘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 根本問題는 美國에 대한 見解와 立場 바로 세우면 이게 다 解決되는데.

보십시요. 이거 저 우리가 對話가 이게 여러갈래 對話가 그래도 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비교적 순탄하게 되어왔다고 봅니다.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會談段階는 이제 거의 結束되고 이제 봄이 되면 그래도 무슨 南北이 좀 門이 열리고 이럴 段階에 도달했는데 美國이 이거 자꾸 障碍거든.

그리고 저 今年 90年代를 놓고 말하면 무슨 年代입니까? 全民族이 이젠 다 決心했습니다. 以前 40年代에 시작된 分裂의 歷史를 90年代에는 終末을 고하자. 우리 民族分裂의 受難史를 21世紀까지는 넘지말게 하자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 지금 다 어째 民族主體的 힘으로, 民族主體的인 힘으로 이 우리 民族 스스로의 힘으로 統一하겠다고 決心 품고나온 때인데 對話가 지금 상당히 進展되는 때인데 美國이 기어코 또 끼어든단 말이요.

南(李熺逸):北韓과 蘇聯과의 軍事訓練은 왜 하는 겁니까? 거기에도 軍事訓練 하고 있더구만 보니까.

北(전금철):李熺逸先生! 조금 이야기 조금 들으라요 들으시요 좀 들으시요.

南(金琫鎬):朝•蘇訓練?

北(전금철):에이.

南(李熺逸):朝•蘇訓練 이제 外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는데 貴側에서도 같은 訓練하면서 왜 그래요?

北(전금철):팀스피리트가 왜 나왔냐 하는거 내가 좀 이야기하자면

그 歷史를 긴 그 歷史부터 캐면…….

南(金顯煜):歷史 얘기는 할 필요없고.

北(전금철):팀스피리트 70年代에 「웬남」에서 戰爭에서 패배한 美國이 말하자면 아세아에서 힘의 空白을 메꿔야 되겠다.

南(蔡汶植):要點만 이야기 하세요. 전금철단장! 要點만 이야기 하세요. 講論하는 時間이 아니예요.

北(전금철):그래서 시작한 것이 팀스피리트다. 그러니까 이 目的을 봐서 뭐이냐? 팀스피리트 目的이 뭐냐? 벌써 南朝鮮을 軍事基地로 군사적 교두보를 떡 튼튼히 틀어쥐고 이것을 基地로 해서 우리 北을 侵攻하고나서 아세아 다른 諸國 侵攻하겠다는 이 目的에서 나온겁니다.

南(金琫鎬):아이고 以北에 안쳐들어가니까 걱정마세요.

北(전금철):그러니까 이 벌써 目的부터 우리에 대한 도전이란 말입니다.

南(金琫鎬):어떻게 戰爭이 납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요.

北(전금철):둘째로 이 目的 出發부터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는 對話의 歷史도 이것 때문에 中斷시켰단 말이야 예. 우린 對話라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美國에 대한 환상 이거 그만 가지라는건데 좀 美國 봅시다. 美國 요즈음 뭐 큰나라치고 뭐 이렇게 軍縮이다 뭐이다 하며 나아가는 方向이예요.

南(李熺逸):우리 總論만, 序論은 하지마시고…….

北(안병수):좀 들으시요.

南(李熺逸):지금 序論만 하고 있잖아.

北(전금철):그런데 美國의 戰略이 그래요 지금 큰나라들이랑 그런 껄렁

껄렁한 關係를 가지고 뭐 緩和다 軍縮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작은 나라들, 分裂된 나라들 하나하나 뜯어먹자는게란 말이야 美國이.

아 보시요. 요새 저 무슨 「그레나다」 다 먹었지, 아 요새는 「파나마」를 또 이렇게 뒤로 치거든. 강도적이란 말이야. 그 美國에 대한 환상 가지지 마세요. 美國이라는게 그런겁니다.

南(蔡汶植):보세요. 몇分이나 걸립니까?

北(전금철):美國은 팀스피리트 가지고 우리를 칩니다. 攻擊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저 蔡汶植先生, 朴浚圭先生보다 더하구만요 對話姿勢에서는.

北(안병수):이건 完全히 무슨 정말 對話에서…….

北(이동철):常識이 없이…….

南(金顯煜):아니 이야기가…….

北(전금철):對話가 相對가 되지 않습니다. 蔡汶植先生 저 朴浚圭先生…….

南(朴寬用):本議題와 關係없는 發言을 하지 마세요.

北(전금철):그래 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내 提起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北(이주웅):여보! 말 自由도 없소? 우리 말 우리 얘기하는데 무엇때문에 强硬하게 말을 막습니까?

南(金顯煜):相對를 尊重하면서 要約해서나 이야기하세요 전단장께서.

北(이주웅):아주 오만한 그…….

南(金顯煜):거 말 조심스럽게 해야죠.

北(이주웅):아 우리 團長이 한다는데 어떻게 相對의 團長이 말이야 이걸 들고 일어나서 말 간단히 해라 이런 態度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요?

南(金顯煜):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자 간단히 끝내세요 간단히.

北(전금철):對話 아주 無禮하구만,

北(이주웅):無禮해요 完全히.

北(안병수):缺禮行爲입니다 그거는.

北(전금철):對話相對도 尊重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北(안병수):首席代表 우리 團長이 이야기하는데.

南(金顯煜):內容이 우리한테 該當이 안된다.

南(蔡汶植):內容을 要約해서 이야기해요.

北(전금철):要約하거나 안하는 것은 우리 立場 탓이지 거기서 뭐 指摘하게 됩니까?

南(蔡汶植):그 立場이라는게 참 고루하고 구태의연해요.

北(전금철):좀 점잖게 좀 노시요. 좀 점잖게 놀아야 돼요.

南(蔡汶植):참 점잖게 人事하고 갈께 해요.

北(전금철):점잖게 좀 놀아야 됩니다.

南(金顯煜):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要約해서 이야기하세요 要約해서.

北(전금철):아주 창피합니다 말이야.

北(이동철):이제 일어서신건 아주 잘못되신거예요.

北(전금철):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되었어요.

南(蔡汶植):왜 잘못돼요?

北(안병수):왜 相對側 團長이 이야기 하는데 감히 일어나서 말이야 이런걸 들고 말이야 訓示하는 그런 會談이 어데있소?

北(전금철):南北對話 歷史에 처음이예요. 그래서 제가 提起하자는거 그겁

니다. 오늘 여기서 저 對話는 끝냅시다. 그런데 우리 저 그쪽하고 이쪽에서 共同으로 무슨 文件하나 만들어서 팀스피리트 中止할데 대한 問題를 美國에다 보내고 그쪽 當局에도 보내고 이거 합시다. 그거 어떻습니까? 간단하니까.

南(金琫鎬):아니 이야기가…….

南(蔡汶植):가만, 내가 對答을 하지요.

北(전금철):그거 합시다.

南(蔡汶植):그것 내가 對答을 하지요.

北(전금철):그거 합시다. 오늘 그거 明白히 좀 하고 합시다. 예?

南(蔡汶植):오늘 會談의 進展에 큰 期待를 걸고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進行된 모습으로 보아서 貴側의 態度로 보아서 會談進展, 南北國會會談 成事에 誠意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절실히 눈으로 보고 發見을 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부터는 會談進展에 誠意를 가지고 會談意義에 充實한 姿勢를 가지고 임해와 주기를 要求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가지 구태의연한 이야기들을 되풀이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一考의 價値도 없는 것으로 나는 또 우리 代表團은 생각을 같이 합니다. 또 팀스피리트가 우리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에 전혀 議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단장이 얘기한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한다 이런 것은 전혀 그것은 語不成說이예요, 말이 되지도 않는다, 議題가 되지 않는다.

北(전금철) : 못하겠다는 얘기구만.

南(蔡汶植) :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이다음 會談에서는 本會談 推進에 관한 熱意를 가지고 나와주기를 再三 促求를 합니다.

北(안병수) : 그런 걱정은 마시요.

南(蔡汶植) : 내가 이런것 發表하기 싫지만 오늘 전금철단장께서 이 자리에서 첫 發言文을 읽는 그 1秒도 안틀리게 10時 27分, 오늘 10時 27分에 貴側에서 오늘 發表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벌써 오늘 會談은 잘 進展을 안시킬 작정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엄숙히 自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國民들이 얼마나 熱望을 하고 있습니까?

故鄕訪問團 설날에 故鄕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것 못가게 하고 있어요? 우리 自由往來·自由通信 빨리 이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指摘한 얘기 다시 아까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側에서는 콩크리트장벽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北(전금철) : 내가, 그것 제발 이러지 마시요.

南(蔡汶植) : 다만 있는 것은 貴下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會談議題, 本會議 議題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면 오늘 會談은 이것으로 그치는게 좋고 이 다음 會談 날짜를 정합시다.

南(金顯煜) : 失望이 많아 失望이.

南(朴寬用) : 날짜가 重要한게 아닙니다. 이 지금 첫 發言文 13페이지에 걸쳐서 本議題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一方的으로 뭐 緊急議題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요. 이거 안한다는 前提 아래서 우리가 會談을 하자 이겁니다. 그 約束 합시다.

南(金顯煜):緊急議題로 다음번부터는 이러한 말이지 議題 밖의 問題를 가지고 緊急議題라는 理由로 장황하게 常識的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失望시켜요.

北(이동철):議題 밖의 問題라고 取扱하지 마십시요. 그 認識 自體가 잘못된 겁니다.

南(金顯煜):아니예요 그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北(안병수):緊張緩和가 어떻게 議題 밖의 問題요? 緊張緩和가 어떻게 議題 밖의 問題입니까?

南(朴寬用):窮極的인 目標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會談이예요.

南(金顯煜):會談에는 節次가 있는 것입니다 節次가.

南(朴寬用):그것 하기 위한 節次 아니냔 말이예요 이게?

北(전금철):오늘 會談 結束하겠습니다. 오늘 會議를 했는데 오늘 會議에서 우리가 상당히 重大한 問題를 제기하고 뭘 좀 問題 풀어보자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이 팀스피리트 다 뭐 이런건 뭐 議題밖의 問題다 하면서 討議를 회피하고 또 그쪽 國會로서, 이 팀스피리트 中止하는 問題와 관련해서 마땅히 措置를 취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계속 回避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인가 하면 結局은 앞으로도 會談은 하되 對決政策은 계속하겠다 이런 論理인데 그렇다면 우리 對話의 前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아까 저 金顯煜先生 거 앞으로 그런 얘기 다 그만둡시다.

南(金顯煜):무슨 얘기?

北(전금철):지난번에도 그 지루하게 장황하게 社會主義나라 다른 나라에 뭐 어떻다는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南(金顯煜):關係가 있지요.

北(전금철):「루마니아」가 어떻다는,「루마니아」가 어떻다는게 그쪽에서 있는 일이죠.「4.19」에 의해서 넘어지는건 그쪽에서 있는 일이고…….

南(朴寬用):「파나마」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노리에가」는 그만두고라도.

南(金顯煜):「루마니아」의 「챠우세스쿠」의 運命을 여러가지로 우리가 한번 깊이…….

北(전금철):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저 琫鎬先生! 우리가 蘇聯하고 訓練하는거 蘇聯하고 訓練 그거 訓練이 아닙니다. 親善交流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訓練은 어디까지나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訓練이고 우리 訓練은 팀스피리트처럼 나라의 情勢를 긴장시킬만한 그런 訓練은 안합니다. 안합니다. 그만큼 그거 경고합니다.

南(李熺逸):「모스크바」放送 들어보셨습니까? 그 點에 대해서?

北(전금철):그리고 오늘은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 저 진지한 立場에 대해서 그렇게 대함으로써 뭐 會談進展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南(蔡汶植):그래서 이 다음에.

北(전금철):基本問題 討議에 들어갔댔자 무슨 뭐 進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約束합시다, 하는데 다음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스피리트에 대한 우리 立場은 明白해요.

南(蔡汶植):우리 立場도 明白해요.

北(전금철):절대 미련 갖지 마십시요.

南(蔡汶植):우리 立場도 明白해요.

北(전금철):그래서 저 다음번에 그쪽에서 가서 돌아가서 무슨 措置를 취할걸 前提로 하고 팀스피리트 中止하리라고 이렇게 보면서 날짜를 決定하자고 합니다. 2月 22日.

南(朴寬用):그것 以前에 會談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서 몇가지 合意를 합시다. 議題外에는 論議하지 않는다는 것을 合意합시다.

北(전금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中止해주기를 바랍니다.

南(蔡汶植): 2月22日. 팀스피리트와 관련해서는 내가 여러번 단호하고 明確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貴側이 거기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性質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 22日날은 좀 우리 웃으면서 本會談 잘하도록 해봅시다.

北(안병수):자꾸 일어서지 마십시요.

南(蔡汶植): 22日 木曜日.

北(전금철):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南(金顯煜):다리에 신경통이 있으셔가지고 가끔 일어서야 돼요.

南(蔡汶植):이 다음에는 會談議題에 관해서 우리가 集中的으로 論議를 합시다.

南(朴寬用):首席代表님! 우리가 앞으로 일을 充實히 하자는데 原則에 合意를 하고 헤어지죠. 앞으로 會談議題에 관해서 보다 本質的으로 議論한다는 原則에 合意하고 좋잖아요?

南(金顯煜):우리 전단장도 거기에 同意하죠? 會談議題에 誠實하자는거 말이예요.

南(金琫鎬):아 우리 차나 한잔 대접받고 가시지.

南(金顯煜):차 한잔 하고 가죠.

南(李熺逸):이동철씨! 저기 가서 차 한잔 같이 안하시겠어요?

北(이동철):後에 봅시다.

南(蔡汶植):차 한잔 하고 가죠.

北(전금철):後에 봅시다.

南(金琫鎬):아니 차 한잔 하시고 가시지.

南(金顯煜):자, 수고하셨어요. 다음번에 우리 가면 차좀 주세요. 우리 차 한잔 얻어 마셔야겠네. 다음번엔 議題에 充實하세요.

北(이동철):팀스피리트 問題때문에 國防部 좀 訪問하고 討論하고 오시요.

南(金琫鎬):자 수고했습니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録〉

代表團 記者會見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日時 : 1990. 1. 24 (水) 12:40 ~ 12:51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1. 記者會見文

(蔡汶植首席代表) : 오늘 아주 날씨가 찹니다. 여기는 서울보다도 5 ~ 10度 더 춥다고 그래요.

오늘 會談 여러분들이 다 지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金顯煜議員께서 오늘 發表를 하시겠습니다.

(金顯煜代表) : 會談의 本質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게 된것을 遺憾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추운날씨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셔서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금일 會談은 上午 10時부터 12時 12分까지 2時間 12分에 걸쳐서 본 「平和의 집」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오늘 會談에서 우리측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인 議題討議 모임의 形式과 頂上會談 開催問題의 의제설정 문제에 대해 議題討議 모임形式을 쌍무회담방식인 代表會談으로 할 것과 頂上會談 開催의 필요성과 절박성으로 보아 議題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고 아울러 상호호양의 정신에 입각해서 本 接觸을 조속히 타결지을 것을 促求 하였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첫발언에서 약 13페이지에 달하는 發言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本議題와는 관련되는 부분은 단 한마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本 接觸의 임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콩크리트障壁의

撤去, 自由往來 또는 全面開放 등을 云云하면서 當局·政黨首腦 會談의 개최문제를 거론하고 또한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지문제를 실질토의에 앞서서 緊急議題로 상정하여 토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本 接觸 본연의 目的과 任務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側은 北側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박하면서 實務節次問題 討議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要求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北側이 계속 이를 거부함으로써 금일 接觸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끝난 것을 대단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第11次 接觸은 오는 2月22日 北側地域인 「統一閣」에서 개최하기로 合意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蔡汶植首席代表): 이다음 만나자 하는 것 合意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2. 質疑·應答

質問: 오늘 會議 분위기로 봐서 팀스피리트훈련 문제를 다음 會議에서도 北韓側이 擧論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準備接觸 成果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答辯(蔡汶植): 다음 接觸의 成果란 것은 오로지 北側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팀스피리트 問題 등등 오늘 저쪽에서 거론, 입에 담았던 이야기들 이러한 것은 저쪽에서 南北國會會談을 성사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底意로 밖에 볼수 없었습니다.

答辯(朴寬用):동시에 北側에서 聲明發表한 것도 말씀드리세요.

答辯(蔡汶植):오늘 여러분들이 혹 아실지도 모릅니다만 北側 전금철團長이 첫번 발언하는 그순간이 10시 27분입니다. 오늘 북측에서 10시 27분에 聲明이 發表된 것이 있습니다. 각종 對話,南北國會會談을 비롯한 各種對話에 관련된 北側의 基本立場이 바로 발표된 시각이 여기에 전금철단장이 첫발언을 하는 그시간에 맞춰서 發表가 되었습니다.

벌써 거기에서 오늘會談이 잘 안될거다,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팀스피리트問題를 南北國會會談에서 거론 한다는 것은 이것은 國會會談을 성사시키는 뜻이 없다 하는 이야기, 그것은 우리한테 대한 無禮, 禮儀가 아닙니다.

議題가 될수가 없는 얘기 입니다. 그런 얘기를 장광설로 늘어놓아 하도 길게 얘기하기에 빨리 끊으라고 내가 좀 일어 섰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준비 해온, 각자가 써온 그 글을 다 읽어야 마치기 때문에 아주 인내를 가지고 듣기는 거의 들었습니다만 전적으로 北側의 성의에 달려 있습니다.

答辯(金顯煜):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會談은 國會本會談을 위한 準備接觸입니다. 오늘로써 10번째 接觸을 가졌습니다만 저희측의 基本的인 立場은 會談의 形式과 議題에 대해서 하루속히 合意함으로써 남북한간의 國會會談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礎石을 까는 작업입니다.

다음번 2月22日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우린 그러한 자세로 誠意있고 진지하게 임할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北側의 자세가 상당한 부분 변화가 있게 되길 우린 강력히 希望하고 그러한 努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質問：아까 會談時 보니까 北側에서 자꾸 障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15分 거리밖에 안되는데 가서 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 會談時에 우리 직접 보여주고 北側 철조망의 1만볼트 이상 되어 있는 철조망 보는게 어떨까요?

答辯（蔡汶植）：오늘 障壁이야기를 저 친구들이 아주 준비해서 장광설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우리 모두가 한마디로 障壁은 없다. 南北이 왕래하는 通行에 障碍되는 우리측 障壁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오로지 뭐가 있느냐 하면 全 休戰線 거리에 3,300볼트에서 萬볼트의 高壓電線 철조망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보러 간다는건 있어야 보는 것이지 없는 걸 보기는 어렵습니다. 없으니까 보겠다는거지.

答辯（金顯煜）：그리고 기본적으로 軍事非武裝地帶 또는 軍事分界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이것은 軍事停戰委員會의 1차적인 책임이고 사명은 그러한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南北國會會談을 성사시키기 위한 會談의 形式問題와 또는 議題問題를 조속히 合意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答辯（蔡汶植）：오늘은 우리가 「平和의 집」을 좋게 建物을 준공을 했고 오늘이 이 建物에서의 첫 會談이었기 때문에 會議中間에 약간 휴식시간을 가져 가지고 北側代表 한테 커피나 또는 간단히 茶菓를 같이 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 오늘 준비해온 자기네들의 내용과 비추어서 거의 응하지 않았습니다.

質問：北韓側에서 10時27分頃에 發表했다는 聲明의 內容을 좀 저희들이 아직 못듣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答辯(蔡汶植):오늘 北側이 대응한, 오늘 會談에서 대응한 그러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대로예요

質問:會談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한 것은 없고 자기내 主張하는 것만 있습니까?

答辯(朴寬用):南쪽 非難.

答辯(李熺逸):요약하면 國會會談, 赤十字會談, 體育會談 등등 통털어서 南北對話는 남한측의 무성의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要旨입니다.

答辯(蔡汶植):안 할려고 그래요. 이 國會會談 뿐만 아닙니다 全部.

質問:오늘 平壤放送으로 나왔습니까?

答辯(李熺逸):放送으로 나왔습니다.

質問:平壤放送으로요? 北韓 政府聲明이예요?

答辯(李熺逸):各 會談代表 共同聲明이예요.

質問:전금철 단장은 빠져있겠네요? 여기에 와 있었으니까요.

答辯(金顯煜):아니 發表해 놓고 왔으니까요, 發表해놓고 왔어요.

答辯(蔡汶植):북쪽의 平壤放送에서 發表를 전금철단장이 發言을 하는 그 時間과 맞추어서 했습니다.

質問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北側 代表團長 記者會見

* 日時 : 1990. 1. 24 (水) 12:21 ~ 12:35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앞 階段

1. 記者會見文

오늘 10차 상봉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측에서는 두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하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북남에 있는 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는데 이에 관련된 우리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하자는데 대해서. 그래 그쪽에서 좀 지금 검토중이니까 좋은 대답이 오기를 바란다는걸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부언한거는 그쪽이 지금 론의된걸보면 이와 관련해서 그쪽은 장벽없다는게 남쪽이 자꾸 얘기되고 그리고 또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은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장벽을 허무는 문제는 삭제하고 얘기하고, 빼구얘기한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협상형식에도 우리는 당국이나 정당들 수뇌들이 협상회의를 하자고 제기하는데 그건 묵살하고 뭐 정상회담이나 토론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본질상 우리걸 액면그대로 받아안들이고 표절하는 것같다 그러니까 우리안이 좋으니까 전체로서 받아주시오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했습니다.

이게 하나구 그리고 팀스피리트 문제가 이 대화에 또 장애를 조성하니까 이거 중지하도록 남조선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우리하고 같이 오늘 공동결의나 하나 하든지 하자고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방안에 대한 문제에서는 콩크리트장벽 없다는 걸로 자꾸 변명하더군요. 그래 우리가 있다는걸 론증했고, 정 그렇다면 같이가보자 뭐 10분이면 가니까 쭉 가면 다 보이니까, 뭐 땅크 방어구축물하곤 전혀 관계없는게구.

원래 70년대 닉슨의 두개조선정책이 나오면서부터, 그다음에 6.23 선언이 나왔고 그다음에 교차승인, 교차접촉의 분렬정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만가지고 두개조선할 수 없으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계에 조선이 두개로 됐다는 걸 공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게 장벽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의 장벽이지요. 그건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됐는데 남측에서는 굳이 뭐 장벽없다 하는 걸로 변명하더군요. 그래 우리 그랬습니다. 이 장벽이라는게 이 분렬의 장벽을 없애야 자유래왕, 전면개방하는데도 부합되는게다. 전면개방, 자유래왕 하자면 인구의 대이동이 있어야 되고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는거고 두 지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이건 거창한 민족적 사업인것 만큼 이 장벽이 장애를 준다 그래 없애자. 이걸 없애야 이 물리적인 장벽없애야 마음에 있던 이 분렬의 장벽, 이것도 없어지는 거다. 그래야 통일에 대한 희망을 준다. 그래서 없애자.

그러고 또 남측에서 이걸 없애야 통일의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유신때 만들어 놓은 분렬을 위한 장벽이니까 그럼 새정권이 유신하고 청산한다고 하는데 똑똑히 청산하려면 이것부터 없애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자유래왕이나 전면개방 잘되게 하자는거 얘기됐습니다.

그러고 팀스피리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남측에서는 오늘 이것은 회담외적인 문제라고 해서 토의자체를 거부했습니다.

1월 7일날 그쪽 당국자 기자회견에서 팀스피리트 이번에 축소하기로 한다하면서 그 리유를 북남대화를 위해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자체가 뭐입니까? 팀스피리트가 대화에 지장을 준다는걸 인정한 겁니다. 물론 축소자체는 우리가 긍정하는건 아닌데, 대화를 한다면 진짜로 팀스피리트 자체를 없애야 대화의 활성화를 보장하는게지 뭐 그까짓 10% 축소만 한다고 해서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건 아무런 본질적 변함이 없다.

우리 그래서 팀스피리트는 대화에 직접 장애를 주는게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면개방, 장벽허무는 문제, 자유래왕문제가 일정에 올라와 있고 북남대화도 여러달을 지나며 예비회담도 거의 결속단계에 들어 봄에 들어가면 뭐 열릴거라고 할땐데 또 들이댄다. 그러니까 이건 대화에 결정적으로 장애다. 대화에 대한 도전이다. 팀스피리트가 원래 이 자체가 공격적이다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제기된게다.

월남에서 패배한 미국이 아시아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남조선에서 군사기지를 더 확보하고 군사교두보를 더 튼튼히 확보하고 그 이후에 북을 공격하고 나아가서 아시아대륙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게 팀스피리트이다. 공격적이다 도전적인거다. 지금도 그 성격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팀스피리트를 계속하면 정세가 더 긴장되고 전쟁으로 나갈 수 있다. 미국에 대한 환상가지지 마라. 미국이라는게 큰나라들 하고는 껄렁껄렁 하는데 그건 전략이다. 그 전략속에서 작은나라들, 분렬된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자는게 미국의 전략이다.

최근에 그레네이더를 단숨에 무력으로 침공하더니, 요즘에는 파나마를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또 훈련도중에 리비아를 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지금 2차대전후에 179차례의 대소전쟁이 지구상에서 있었는데 미국이 어느 한 전쟁에 직접간접적으로 간섭안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개입했습니다. 이런 강도적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말라. 우리가 잠자기만 하면 쳐서먹자는게 미국이다.

그러니까 남조선국회가 좀 우리하고 오늘 공동결의해서 미국에다 팀스피리트 중지할데 대한 문제, 남조선 당국에서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남조선 당국에 호소하자 하는거 우리 제기했는데 거부했고, 그래 그게 싫다면 돌아가서래도 조치좀 취하고 국회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고, 이래서 오늘 결국 실무문제 토의에는 못들어 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무문제 토의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팀스피리트는 대화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화에 나온다면 그건 대화안에서 팀스피리트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대화외적 문제아니다 결코.

그래서 마지막, 날짜는 다음번 만나자는 문제 논의됐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만나자면 만날만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자면 당신네들 돌아가서 팀스피리트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리라고 기대해서 그래서 그사이 팀스피리트 중지문제가 그쪽에서 거론돼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회담 날짜를 정하자고 해서 2월 22일로 날짜는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 質疑·應答

質問: 外信이나 일부보도에 의하면 北京같은데서 美國과 北韓側이 接觸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우리 國內問題

같은 것을 美國側과 直接接觸을 해가지고 해결하려는 그 理由는 뭡니까?

答辯 : 지금 北京에서 논의된거는 그건 그대로고 여긴 여기대로 또 美國하고 南側이 지금 결탁해서 우릴 攻擊하고 戰爭을 하니까 여긴 여기대로 논의 장소가 됩니다. 거긴 거기대로 논의할수있는거고.

質問 : 本會談의 올해 성사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答辯 : 팀스피리트 우선 중지해야 對話가 잘됩니다. 이거 중지해야 됩니다. 팀스피리트 중지하면 이 會談이 아주 잘될거고, 活性化될거고, 아시다시피 國會會談에 대한 實務節次問題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습니다. 전망도 좋습니다. 다만 이 장애가 팀스피리트입니다. 이 장애를 극복한다면 우리 對話展望은 좋다고 봅니다.

質問 : 또 한분은 軍事分界線 그쪽에서도 콩크리트 障壁이 있다고 主張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말해주십시요

答辯 : 사실 그거야 없는건데 우리는 철조망밖에 없어요. 오늘도 저기서 北에 障壁이 있다는 말을 못하더군요 그건 말못해요.

북에 철조망 있다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그게 우리 철조망이있다. 철조망은 하루사이에 없앨수 있으니까 그쪽의 障壁 그거 없애고, 저 장벽없애는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쪽에서 統一意志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도 없애는게 좋은데 그건 한달이면 없앨것 같애요.

質問 : 다음會談이 2月 22日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만약 팀스피리트를 남쪽에서 중지하지 않는다면 會談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答辯 : 팀스피리트 이거 中止돼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中止돼야 됩니다. 팀스피리트는 우리의 원칙적인 立場이 있습니다.

質問：南韓의 政界改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答辯：난 원래 대답할 위치에 있지 못한것 같은데 政界改編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말하는데 좀 모를것이 있구만. 理解되지 못하는게.

왜 그게 갑자기 그리되는가. 우린 政黨이라고 하면 어떻게 理解하는가 하면 우리 나름으로 이해하는건 어떤 理念이라든가 어떤 政策·政綱이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모아지는 사람들 집단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論理를 보면 政黨이 서너개 있었다면 그 理念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고, 政綱도 차이가 있었겠는데 理念定立이라든가 政綱定立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로 되더군요.

그거 무슨 內的인 뭐가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나고 또 그쪽 內部問題니까 내 더는 얘기 안하겠어요.

어쨌든 기대는 이게 통일염원, 인민들의 자주화 운동, 민주화운동 이런데 障碍가 되지 말고 그거다 수용해서 일이 잘되는 方向에서 해야지, 잘못되는 方向에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것이 더구나 對北關係에서 뭐 어쩐다 하는 말도 들리는데 對北關係에 대해서 政界改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質問：北側에서 주장하는 콩크리트 障壁이라고 하는게 지금 저기 보이는 벽처럼 全休戰線 마일에 저렇게 콩크리트 障壁이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뭐를 이야기하는거예요 콩크리트 障壁이라는게 구체적으로.

答辯：콩크리트 障壁이라는게 東西를 가로질러 있어요.

質問：죽 연결되어 壁처럼 돼 있다는겁니까?

答辯：연결되었는가 안되어있는가는 딴 問題이지.

質問：아니 障壁이라는 意味가 일반 壁처럼 休戰線에 걸쳐서 죽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콩크리트施設物이 돼 있는거를 障壁이라고 말씀하시는건지.

答辯 : 障壁이라는게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고 떨어질수는 있어도 전체로 보면 연결되는거지요. 그럼 障壁이란 말이야. 뭐 토막 토막 떨어지면 障壁이 아니고 하나로 되면 障壁이고 그런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地理學的 概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합시다.